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시아나항공 사고 한미 영상 보도 비교
연구

김홍길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2023년 8월

아시아나항공 사고 한미 영상 보도 비교 연구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 홍 길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지도교수 김 경 호

김홍길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_____	김 희 정	印
위 원	_____	김 경 호	印
위 원	_____	이 서 현	印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American Video Reports of the Asiana Airlines Accident

Hong-Kill Kim

(Supervised by professor Gyong-H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23 . 6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 초록

제 1 장 서론	7
제 1 절 연구 배경	7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7
제 2 절 문제 제기	9
1. 문제의 제기	9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분석	11
제 1 절 항공 재난보도	11
1. 재난보도의 준칙과 사회적 의미	11
2. 항공기 사고와 언론 보도	12
제 2 절 뉴스와 현실 인식 구성	14
1. 뉴스와 그 특성	14
2. 뉴스와 현실 인식 구성	15
제 3 절 프레이밍 이론	16
1. 프레이밍(framing) 이론의 개념	16
2. 뉴스 프레임 개념	18
3. 뉴스프레임의 유형	20
4. 뉴스 프레임의 형성	21
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22
1. 뉴스 영상 보도 분석	22
제 3 장 연구문제 및 방법	25
제 1 절 연구 문제	25
1. 연구 문제	25

제 2 절 연구 방법	26
1. 연구 방법	26
2. 분석 방법	28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34
제 1 절 보도량 분석 결과	34
1.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 분석	35
(1)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 영상 분석	35
(2)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39
2.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 분석	42
(1)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 영상 분석	42
(2)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46
3.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 분석	49
(1)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 영상 분석	49
(2)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52
4.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 분석	55
(1)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 영상 분석	55
(2)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59
5.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 분석	62
(1)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 영상 분석	62
(2)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69
6.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 분석	71
(1)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 영상 분석	71
(2)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75
제 2 절 국면 별 한미보도영상 ‘샷’ 분석 비교 결과	77
1. 한미 언론 제 1 국면 보도 영상 ‘샷’ 분석 비교	77
2. 한미 언론 제 2 국면 보도영상 ‘샷’ 분석 비교	78
3. 한미 언론 제 3 국면 보도영상 ‘샷’ 분석 비교	79

제 5 장 결론과 함의	82
제 1 절 연구 결과와 영향	82
제 2 절 결론과 시사점	85
제 3 절 제언 및 한계	86
 [참 고 문 헌]	 88
[Abstract]	92

표 차례

<표 1> 분석 유목(KBS, YTN, ABC, CNN 공통)	32
<표 2> 보도기사 수량	35
<표 3>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 영상분석	36
<표 4>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40
<표 5>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 영상분석	42
<표 6>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46
<표 7>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 영상분석	49
<표 8>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53
<표 9>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 영상분석	55
<표 10>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59
<표 11>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 영상분석	62
<표 12>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69
<표 13>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 영상분석	71
<표 14>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75

그림 차례

<그림 1> 샷 분석 프로그램	31
<그림 2> 보도량 분석결과	34

아시아나항공 사고 한미 영상 보도 비교 연구

김 홍 길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본 연구는 2013년에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대한 한미 언론의 영상 보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미 언론의 뉴스 영상을 수집하고 언론사별 보도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 뉴스 보도의 형식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포진이론에 따른 세 가지 국면을 적용하여 한미 뉴스 영상의 '샷'을 추출하고 비교분석 하였으며 각 국면의 '담론구조와 프레이밍' 분석으로 양국 보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언론은 항공기 기계적인 결함과 공항 착륙 시설 고장에 초점을, 미국 언론은 조종사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상반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언론은 사고 초기 국면을 벗어나면서부터 '조종사 과실'에 대한 담론과 프레이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고 보도의 핵심내용으로 조종사의 과실을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미국 언론은 사고 초기 국면을 벗어나면서부터 '조종사 과실'에 대한 담론과 프레이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진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과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 언론의 보도 차이는 각 국가의 이해 관계와 그에 따른 언론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국가 간의 이

해관계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한국 언론 보도의 미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이 국가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반영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뒷받침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이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와 한국의 항공업, 정부 정책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 안전 대책의 수립과 시행, 특별 안전 점검의 시행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반응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뉴스와 재난 보도의 중요성과 객관성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에 의문을 던지며 특히, 국가 이익과 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형성된 프레임과 담론에 의해 뉴스 보도가 왜곡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미디어가 국가적 사건에 대한 보도를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013년 7월 6일 태평양 표준시 11시28분, 한국시간 새벽 03시27분 아시아나항공 214편으로 운항하던 인천발 보잉 777-200ER HL7742 항공기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의 활주로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착륙 직전 활주로 전방에 위치한 방과제에 메인 기어와 동체 후방이 충돌하면서 항공기 동체 꼬리가 부러져 나갔다. 이어서 항공기는 활주로를 따라 계속 미끄러지면서 부분적으로 들어 올려진 채로 약 330도를 회전하여 지상에 닿았으며 그 후 멈추었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승객 40명, 승무원 12명 중 8명, 승무원 4명 중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승객 248명, 승무원 4명, 승무원 3명은 경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지 않았다. 비행기는 추락 후 충격력과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다(NTSB Report, 2014).

항공기가 방과제 끝단 충돌 후부터 멈춰 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현지 언론의 뉴스 속보를 통해 긴급 타전되어 생생한 영상으로 보도되었다.

한미 양국 언론이 앞다퉀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 사고 당시의 임무 기장은 비행 중 임무 교대를 위해 탑승한 4명의 조종사 중 기종전환 훈련 중인 조종사였다. 이어서, 훈련중이었던 기장의 B777 항공기 운항 경력이 43시간 밖에 되지 않은 점이 보도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첫 번째 비행이었다는 점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현지일 7월8일, NTSB의 사고조사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사고 원인의 조종사 과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사실상

이를 단정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 첨단 기술 집약적 분야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은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친 많은 부분에서 풍요로움과 다양한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형화된 민간 항공시장에서 항공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올리버-스미스(Oliver-Smith, 1996)는 ‘위험 및 재난에 대한 인류학 연구’에서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인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과거의 민간항공기사고와 큰 차이를 갖는 부분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사고의 규모에 비해 사망자의 수가 3명으로 현저히 적었던 점과 대부분의 항공 사고가 사고 당시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비행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로 구성된 블랙박스의 분석을 통해 분석되는 특성과는 다르게, 사고 발생과 탑승객 비상탈출, 화재 진압까지의 과정이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어 뉴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의 시각적 충격과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이러한 뉴스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슈람(Schram, 1971)은 재난이나 위기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정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역할은 중대하다고 하였다. 임연희(2014)는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을 마주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언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텔레비전의 뉴스로부터 재난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하게 되므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이번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뉴스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인 ‘영상 보도’이다. 오늘날 뉴스 보도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영상요소들을 제외한 정지화면만으로는 제작될 수 없는 것이 현실로서 영상은 뉴스의 필수조건이다.

백선기(2003)에 의하면 영상은 ‘보았다’라는 경험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데에 익숙한 인간에게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의 인식에 의식적,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뉴스의 수용자 인식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상 보도요소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항공 사고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보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함께 불러올 때가 많다. 사고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기사는 물론 보도나 시선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들을 발견되기도 한다. 한미 간의 언론 보도는 이러한 사고 후의 상황에서 정보 전달 방식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며 제작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미 언론의 영상 보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언론 환경과 사고 보도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뉴스의 형태가 책임소재의 결과가 큰 항공사고라는 재난상황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국가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이다. 논의의 결과로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뉴스 보도 방식에 대한 기반을 견고하게 하고 대응방안 및 정책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문제 제기

1. 문제의 제기

이 사고가 과거의 항공기 사고들과 다른 점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구조, 비행기 화재 진압까지의 전 과정이 비디오에 담겨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고 당시의 비디오가 존재하는 점은 이전까지 대부분의 항공사고와는 달랐다. 이런 예외적인 재난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크게 중요해지며, 이러한 중요성은 각국의 미디어 보도차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으로, 항공사고에 대한 뉴스 보도는 그 사고의 실제 상황을 묘사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반향과 국가적 영향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간에는 사고에 대한 뉴스 보도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미간 이 사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생겼다.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에 대한 책임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 보니, 뉴스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이번 사고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미디어는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과실로 결론지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 미디어는 다양한 요인들을 들어 그 원인을 보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향들은 본 연구자로 하여금 뉴스의 공정성과 그 기능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번 사고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보도 차이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뉴스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 경제, 국가적인 파급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하려고 하였다.

최근의 사고가 아닌 이미 10년이 지난 사고를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로 한국의 항공 안전에 대한 대내외 정책이 큰 격변을 겪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한 항공 사고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에서 오히려 퇴보한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5년 아시아나항공 히로시마 공항 추락 사고와 2016년의 대한항공 하네다 공항 사고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바를 문제 제기의 근간으로 삼아 2013년의 사고를 재조명하려고 하였다.

필청청(2016)에 의하면 각국 언론은 각기 다른 보도 방식과 관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교 연구를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사고 보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한미 뉴스 보도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항공 사고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가 사회적, 국가적 영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미디어 보도가 어떻게 사회적, 국가적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분석

제 1 절 항공 재난보도

1. 재난보도의 준칙과 사회적 의미

1990년대 이후 재난 보도에 관한 연구는 신문과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김성진·박경우, 2009).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보도 역시 크게 중요해졌다. 이런 변화는 현대 사회의 재난, 대형사고, 위기 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전파 속도와 범위가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실시간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언론이 보도하는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빠르게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확인하며 경험과 견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협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매뉴얼(2023)에 의하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재난에는 태풍, 홍수, 지진, 폭설 등과 같은 자연 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의 인위적 재난, 그리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으로 인한 기반재난으로 나뉘어진다.

한국 언론사에 재난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다. 이 사고 당시 수많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당하고 구조활동 또한 방해를 받아 그에 대한 반성과 대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뒤늦게 2008년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KBS와 MBC 또한 재난 방송에 관한 방송 강령을 마련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 강령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이어져왔으며 방송사별로 재난 보도 시스템을 재점검하거나 보도 준칙을 새로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였다(정수영,2015). 그러나, 피해 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로의 정보 제공,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구조와 복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하는 정보 소비자의 역할 등을 충족시키는 데는 아직 부족한 면모가 있었다(백선거·이옥기, 2012).

언론의 역할은 정보 전달뿐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형 재난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2차 재해 발생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정연구 외, 2016).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TV를 통해 먼저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나 성향을 불문하고 미디어는 속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에 더하여 재난 보도는 단순히 1차적인 재난 상황만을 보도하기보다는 재난 이후 발생할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하고 추가 재난 발생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가 되어야 한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는 재난을 지진, 태풍,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는 주로 허리케인 등의 태풍과 폭풍, 지진, 폭발사건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난 보도에 대한 정의 면에서는 단일 항공 사고 자체는 재난 보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항공기 사고와 언론 보도

항공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대형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대처와 관리 수준이 미치는 영향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 수준이 낮을 경우, 인명 손실과 함께 사회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고조사 결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파급효과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일 경우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대규모 소송과 피해 보상, 항공기 제작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백서(2020)에 의하면 Boeing B737 MAX의 추락 사고로 인해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국연방항공청)와 EASA(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유럽항공안전청)로부터 B737이 전 세계 항공사 이륙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해 Boeing사와 미 당국이 처해 있는 여러 현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적 파급효과로 과실의 원인과 주체 여부에 따라서 각종 소송과 피해 보상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과 안전하지 않은 항공사라는 인식으로 인해 국가 항공 신용등급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국토교통부 항공안전백서, 2020).

셋째, 사고지 항공 관제 당국의 과실일 경우 해당 국가와 이에 소속된 기관은 긴 시간 동안 각종 소송과 피해 보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란).

결과적으로 어떠한 명백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간 항공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지역 교민 사회와 기업의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나게 된다. 자연재해나 다른 사고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의 미디어의 보도 행태는 유의미한 차이를 크게 보이지는 않으나 이러한 과실 여부가 대규모 소송과 천문학적 금액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항공기 사고에서는 국가, 지역 경제의 손익에 따른 언론 보도 행태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다수 일반인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항공 사고는 출발, 도착지 공항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뉴스 영상의 대부분은 과손된 기체의 잔해 일부이거나 재연된 영상으로 구성된다. 이에 항공 사고 보도의 특징은 사고 발생 순간 전, 후의 생생한 현장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 있다.

항공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 규명과 그 후 사후처리를 위한 여러 국가의 개입과 압력, 제재 등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술적, 인명에 대한 면에서 다수의 국가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을 가공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국의 입장에 맞게, 혹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따라 다른 논조의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항공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들은 예외 없이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방송사의 보도 수준, 장비, 시설과 구성원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지금의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쌓여 우리나라 방송의 재난 보도 체계가 보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 타국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뉴스와 현실 인식 구성

1. 뉴스와 그 특성

뉴스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뉴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종 분야의 정보들을 습득하고 인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기능들이 뉴스의 정의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때 그 사건이 ‘특이한 요소’를 지니게 되고 이때 비로소 알려질 만한 힘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의 특이함을 전파하는 설명이 바로 뉴스가 된다(최중수, 1984).

뉴스 매체 중 영상과 소리를 동반한 뉴스는 현장의 화면과 설명이 함께 제공되므로, 시청자들이 현장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처럼 느끼고 뉴스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가장 믿을 만한 매체로 여기게 된다(김성진·박경우, 2009).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의 발달이 큰 변화를 주도하였다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현실 인식을 위한 매체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뉴스는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정보이며 사회를 향하여 발신하는 공적인 정보이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이해관계가 걸린

정보로 정리할 수 있다(양영철, 2009).

김진용(2015)에 따르면, 전통적인 뉴스의 주요 기능은 '정보전달', '여론 형성', 그리고 '사회화'로 나누어진다. 현대의 다양한 미디어 매체 중에서도 텔레비전은 여전히 보편적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매체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은 뉴스의 전파 방식과 특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통매체와는 달리 뉴미디어들은 뉴스에 대한 즉각적인 의견과 속보를 제공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쌍방향의 저널리즘 환경을 구축해 가고 있다(정민환, 2012).

김진용(2015)은 뉴스의 세 가지 기능 중 여론형성을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부분이 실제로 지켜지기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뉴스의 전달 채널이 다양화되고 제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많은 부분에서 희미해지면서 뉴스의 객관성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해진 전달 채널로 인해 뉴스 제작자나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성이 나타나기 쉬울 것이다. 더욱이 사회나 국가의 이익에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다.

2. 뉴스와 현실 인식 구성

박선희(2002)에 의하면 미디어는 특정 시각과 가치를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현실을 중개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뿐더러 중개자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는다. 미디어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며, 이 과정에서 현실의 구성과 중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정치와 사회에 대한 특정 이미지가 수용자들에게 형성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의 구성은 주변의 현실을 전체적으로 포착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렇듯 우리가 모든 사건과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언론이 뉴스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현실을 구성하고 보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접하며 비로소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현실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사 내용의 양적 분석이나

미디어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기사의 내부 구조나 복잡한 의미를 완전히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다이크(Van Dijk, 1985)가 ‘담론과 사회(Discourse and Society)’에서 제시한 ‘담론구조분석’이 등장하였다.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담론 분석이 시도되어왔다.

임태섭,김광수(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담론 분석의 기본 가정은 텍스트의 의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규칙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적인 접근은,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의도와 상관없이 문법 구조와 의미 체계에 따라 강제적인 언어 행위를 수행한다고 이해하게 한다.

백선기(2005)의 주장에 따르면 언론의 관점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언론의 뉴스 영상, 텍스트와 담론을 통해 현실의 구성을 연구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론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뉴스 보도의 편향성이나 특정한 시각과 가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이 뉴스 영상의 현실 인식 구성과 현실 반영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우리는 뉴스가 어떤 의도를 담고 특정 방향으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프레임링 이론

1. 프레임링(framing) 이론의 개념

언론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프레임(frame,틀)’ 또는 ‘프레임링(framing, 틀짓기)’ 개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뉴스의 현상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프레임링(framing)은 우리가 카메라 등의 장비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피사체를 뷰파인더나 모니터의 테두리 안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일이다. 즉, 바라보는 화면 안에서 구도와 구성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앵글이나 틀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 프레임 혹은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차현주·권상희, 2020).

베이튼(Bateson, 1972)이 ‘프레임(frame)’ 용어를 사용한 이후로 프레이밍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연구는 트버스키와 카네만(Tversky & Kahneman, 1973)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같은 정보가 손실을 중심으로 주어졌을 때는 위험회피(risk-averse) 경향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같은 정보가 이득을 중심으로 주어졌을 때는 위험 추구(risk-seeking) 경향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선택에는 ‘확률’과 같은 ‘객관적’ 정보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판단의 기제가 작동하는데, 그 판단 기제의 핵심은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실재적, 객관적 혹은 확률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프레이밍 되어 개인들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이라고 보았다(차현주·권상희, 2020).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프레임에 따라 개인의 선택 경향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프레이밍은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확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후 프레임이 사회과학과 언론학에서 학문적인 개념으로 선구적이고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고프만(Goffmann, 1974)의 저서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으로부터이다. 그는 사회의 모든 조직은 프레이밍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 부여 방식을 채택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프레이밍은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이해하고 해석할 때 사용하는 틀과 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관점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프레이밍을 기초로 사건, 상황을 인지,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성원들이 채택하는 프레임의 유형은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을 제공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개인들이 의미를 파악하고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context), 배경(background), 상황 규정(definition of situation)등 포괄적인 해석의 틀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했다(이희영,

2016).

이런 고프만의 주장을 따른다면 개인이나 조직에서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원활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사회적 맥락이나 현상을 파악하는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George Lakoff & Mark Johnson, 1980)이 공동 저서 ‘삶으로의 은유(Metaphors We Live By)’에서 프레임이 언어, 사고 및 인식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언어학과 인지과학 분야에서 프레임에 대해 접근하고 해석하려 한 영향이며 그들의 접근 방법이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프레임 이론에 대한 후속 연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프레임 이론은 미디어 연구와 언론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커뮤니케이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2. 뉴스 프레임 개념

뉴스 프레임은 미디어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뉴스가 대중에게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레임은 사건이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맥락을 제공하며, 청중의 해석과 평가를 형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엔트만, 1993).

이런 맥락에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뉴스가 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갠슨과 모디글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는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원자력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여론(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에서 언론 보도에 사용된 프레임이 청중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은 뉴스 프레임을 이용하여 언론 보도의 구성 방식과 청중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이를 적용함으로써 미디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더욱 높은 부합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임의 개념은 고프만(1974)의 선구적인 사회과학적 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학자들이 각각의 이론과 관점에서 프레임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며, 프레임의 개념이 점차 정교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레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여전히 모호한 면이 남아 있으며, 선행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용어로 표현되고 있었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프레임에 대한 용어는 프레임(frame)과 프레이밍(framing)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며, 뉴스 프레임, 미디어 프레임, 수용자 프레임, 프레임 이론, 프레이밍 이론, 프레임 효과, 프레이밍 효과, 해석적 프레임, 수용자 틀, 틀 짓기 효과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목적과 분야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터크만(1978)은 뉴스가 사건들과 세부 사항들 중에서 선택되고 해석되어 구성된 현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뉴스 프레임은 제도화된 뉴스 제작 과정의 "선택과 배제"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응용으로, 아이엔가(1991)는 프레이밍(framing)을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 특정 측면을 선택하고 특정한 관점으로 부각시키는 도구로 설명했다. 그는 뉴스 프레임 개념을 특히 '선택과 강조'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한편, 텐카드와 그의 동료들(Tankard et al. 1991)은 프레이밍이 뉴스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집시키는 중심 아이디어와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프레이밍이 맥락을 제공하고, 이슈를 다루는 방식을 제안하며,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뉴스 내용의 주요 의미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뉴스 프레임이 매체 이용자들의 언론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엔트만(Entman, 1993)은 언론이 프레이밍을

통해 현실의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 강조한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뉴스와 사건을 언론이 의도한 방향으로 처리, 해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로소사(Losorsa, 2002)는 프레임이 뉴스 미디어가 스토리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라 뉴스를 수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은 언론사나 미디어가 일정 부분 의도적으로 구성한 현실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시청자들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주장과 선행 연구들을 통해, 언론의 프레임 방식이 뉴스 내용의 인식 및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은 뉴스 프레임의 선택과 구성에 신중함을 갖춰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뉴스프레임의 유형

오늘날 연구자들은 많은 분야에서 프레임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언론학 분야에서 프레임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뉴스 프레임의 다양한 유형이 분석되고 정리되어왔다.

형식적 프레임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엔가(1991)는 뉴스 메시지를 제시하는 형식에 근거해 프레임을 ‘일화 중심적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개별사건에 대한 중심적 서술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이슈나 사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및 문제에 대한 실제 사건 중심의 묘사가 주를 이룰 경우로 구분되며 수용자에게 사건이나 사회문제를 피상적으로 이해시켜 즉각적,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사건 전체의 맥락을 서술방식으로 사건 발생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규명하여 이슈의 인과관계에 따라 사건 원인과 결과를 사회 구조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로 분석적으로 해석한다. 때문에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일반적인 결과나 조건 혹은 통계적인 자료를 활용하거나 강조하는 성격을 띠는 반면

‘일화적 프레임’ 유형에서는 해당 이슈를 사건 중심적이거나 시각, 청각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현장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Iyengar,S, 1991; 권현경, 2015 재인용).

세멧코와 발켄버그(2000)는 프레임을 ‘갈등, 인간적 관심, 책임, 경제적, 도덕적’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성태(2005)는 이에 더해 ‘결과 프레임’을 제안했다.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은 뉴스에서 불일치, 긴장 및 불화를 상당 부분 강조하여 문제 또는 사건을 둘러싼 갈등 또는 논쟁을 유발한다. ‘인간적 관심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은 문제나 사건의 인간적 또는 감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 프레임(responsibility frame)’은 문제나 사건, 재난 상황에 대응한 조치 또는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경제적 프레임(economic frame)’은 이슈나 사건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이나 비용, 영향의 측면을 강조한다. ‘도덕성 프레임(morality frame)’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가치, 신념의 측면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며 종교적 근거나 윤리적인 기준, 사회적인 규범 등을 부각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Semetk & Valkenburg, 2000).

‘결과 프레임’은 위험, 이점 또는 결과를 강조하여 사건이나 사고의 잠재적 결과를 강조한다. 이 프레임은 특정 행동이나 행동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인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종종 사용되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나 혜택,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나 관계자, 후속 조치나 계획 등을 부각시킨다(김성태, 2005).

결과 프레임의 이러한 특성은 언론이 수용자들에게 사건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적인 반응이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4. 뉴스 프레임의 형성

뉴스 프레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뉴스 제작은 미디어 조직의 대내외적인 환경요인, 조직의 특성과 개인의 가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쉐펠레(Scheufele, D. A. 1999)는 이러한 요인들을 정리하여 뉴스 프레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언론인 개인 차원의 요인으로, 이것은 언론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도덕관과 가치관, 사물과 사건에 대한 생각, 타고난 성격과 성향, 사건에 대한 분석능력이다. 둘째, 각 언론 조직 차원의 요인으로 취재, 편집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언론 조직이 쌓아온 뉴스 제작 관행 등이다. 셋째, 뉴스 조직 외부 차원의 요인으로 이중 정보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외부 정보원으로부터의 중요 정보와 그에 따른 압력, 어떤 정보원을 어떠한 대가를 통해 선택하느냐가 기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이희영, 2016).

이러한 구분에 더해 '부분적인 정부 통제'는 뉴스 프레임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개인 소유의 미디어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정부는 법, 규제, 면허, 세금 등을 통해 미디어를 통제하며, 미디어 제도가 국영인 경우에는 재정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를 하기도 한다(백선기, 2003).

뉴스 프레임 형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이 형성과정에는 언론사와 미디어 조직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는 뉴스를 구성할 때 특정 프레임을 선택하고, 뉴스 영상의 언어, 어조, 구조, 카메라 구도 등을 설정함으로써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희영, 2016).

따라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뉴스의 신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를 제작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뉴스 프레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시청자들에게 편향되지 않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1. 뉴스 영상 보도 분석

최민음, 태보라(2017)는 흔히 '프레임(frame)을 씌운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미디어가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수용자에게 특정 관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핵심내용을 축소하거나 과장해서 전달하는 패턴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참사와 항공 사고에 대한 재난 보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 언론 매체인 신문보다 사고현장을 눈앞에 영상화하고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텔레비전이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백선기(2003)는 영상 보도는 시청자가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현장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하였으며 이는 영상 보도의 핵심적 역할임에 분명하다. 그에 따르면, 영상 보도는 참사 현장의 영상, 기자, 앵커의 설명이 같이 보도되므로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뿐 아니라 보도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 보도가 사고상황을 재구성하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나 흥미 위주의 보도 구조와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신문 매체의 시기를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본 연구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 중 국내 언론 보도에서 좀 더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도 프레임 측면에서 보도 영상을 살펴볼 때 국내 언론 보도는 그 의도와 지향하는 바가 분명치 않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으나 미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보도 내용과 방향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국내 보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 사고와 준 사고에 대한 경향을 분석한 김웅이·최연철(2012)과 항공 사고의 인적인 부분에서의 오류에 대한 원인과 경향을 분석한 최연철·김양규·김철영(2012) 등은 주로 사고의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노태우·박재찬(2014)은 항공 사고 사례를 통해 국적 항공사의 안전개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백선기·이옥기(2011)는 방송 보도 태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혜정·정정주(2016)는 한 가지 사건에서 각 나라의 언론 보도 텍스트, 중심성과 의미망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각 나라가 중요시하는 사안에

따라 차별적인 보도의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언론 보도의 프레이밍이 형성될 때 사회, 문화적인 요소와 같은 외부 요인이 투영될 경우 언론 보도의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되고 이에 따라 언론 보도의 텍스트가 형성되어, 각 나라에서 형성되고 깊이 자리 잡은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언론 보도의 형식, 내용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한미간 언론 보도의 비교분석 결과로 보여지게 될 보도의 양상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영상 분석 분야에서 김경호(2019)는 보도에 사용된 샷의 빈도와 유형, 그리고 포맷에 따른 영상 “샷” 구성에 대해 정밀 분석하였다. 그의 영상 “샷” 분석에 의하면 샷의 구성은 샷의 빈도와 유형, 영상의 포맷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영상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과 영상제작기법은 시청률에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영상 샷을 많이 노출하는가, 샷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어떠한 구도로 배치하는가, 샷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들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샷으로 이루어진 영상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는 미 대통령 대선 토론회 보도 영상에서 사용된 샷의 연구에서 장면 전환과 구도에 따른 장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정밀한 샷으로 분류하고, 포맷에 따른 영상 샷 구성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포맷은 진행방식, 무대 설치, 자세와 위치, 카메라 위치 등 여러 요소들이 선택된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이러한 포맷에 따라 샷 구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포맷과 샷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영상에서의 샷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 연구에서의 샷 구성에 대한 연구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샷 구성이 시청자들에게 사건을 경험하고 실재를 이해하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영상 보도의 분석을 위한 선행 연구로 백선기(2003)가 보도 영상의 서사 구조와 의미구조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뉴스 영상 아이템의 서사 구조와 의미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재난 보도의 보도 태도와 뉴스 구성 방식의 문제점

과약을 통해 재난 보도 체계의 구축이나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뉴스 보도가 갖는 강력한 특징이며 상징인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한미간 주요 언론 보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텔레비전 뉴스는 그것을 구성하는 영상요소들을 제외한 채로는 만들어질 수 없고, 영상은 그것이 정적, 동적 화면을 구분할 필요 없이 방송의 필수조건이다. 뉴스 영상은 ‘보고 들었다’라는 경험적인 지식을 맹신하는 인간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정민환, 2012).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한미간 뉴스 영상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영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고 발생부터 미국교통안전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발표시점까지 11개월이 소요된 사건으로 연구의 기간 설정은 국면을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한미 방송사 보도 기사의 수, 보도의 빈도와 주제에 따른 보도 량 등 보도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1] 첫째,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관한 한미언론보도의 형식적 특성은 어떠한가?

프레임 분석은 한미언론에서 사고 대응과 원인에 대한 프레이밍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에 중점을 두어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프레이밍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연구문제 2]를 설정했다.

[연구문제2] 둘째, 샌프란시스코 사고 보도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뉴스 영상에서 언어와 이미지 표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및 시각적 콘텐츠 모두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영상의 “샷”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언론이 [연구문제 2]에서 의도한 프레이밍이 영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3] 셋째, 샌프란시스코 사고 보도 한미 영상 분석결과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사고대책본부의 공식 보고(OZ214 (HL7742) Incident Review,2014)와 NTSB의 사고조사 보고서 Report(Aircraft Accident Report: Descent Below Visual Glide path and Impact With Seawall, JUN,2014)를 사용하였다.

연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인 2013년 7월 6일부터 미 당국의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운항이 중단된 2014년 12월5일 까지로 설정하였다.

한국 국적의 언론사 중에는 한국 언론진흥재단(2018)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디어별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KBS와 뉴스 영상 보도의

비중이 우세한 24시간 뉴스보도 전문채널인 YTN을 선정했으며, 미국 언론사에는 미국 전통의 3대 언론사 중 하나인 ABC와 한국의 YTN과 유사한 보도 체계를 보여주는 미국의 24시간 뉴스보도 전문채널 CNN을 선정했다.

주 분석의 대상이 YTN, CNN 임에도 KBS와 ABC를 함께 선정한 것은, 연구과제 1의 형식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미간 분석기간 보도 건수의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KBS, YTN, ABC, CNN의 데스크에서 사고와 관련한 뉴스의 보도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뉴스 영상의 수집을 위해 YTN, KBS, CNN, ABC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 사고’, ‘ASIANA AIRLINES’, ‘ASIANA San Francisco’, ‘Flight 214’, ‘San Francisco Crash’로 검색하여 기사를 수집하였다.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영상자료를 분석하기를 시도해보았으나 미 언론의 경우 서버 불안정, 영상의 잦은 버퍼링, 늦은 영상처리 속도로 인해 정상적인 뉴스 영상 분석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영상 링크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뉴스는 ‘HD Downloader(HD다운로더)’와 ‘VideoProc(비디오프로크)’ 두 가지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을 추출하고 저장하였다.

둘째, 소스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뉴스의 경우에는 ‘ShareX(쉐어엑스)’ ‘프로그램으로 모니터에 출력되는 영상 자체를 저장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의 선정 이유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에 제한이 없고 사용방법이 극히 단순화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이었다.

사건의 국면에 따른 분석을 위해서 르윈(Kurt Lewin,1951)의 포진이론(Force Field Analysis)에 따른 분류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언론 보도의 변화를 세 가지 국면으로 분류한 뒤, 프레임링 이론을 도입하여 각 국면에서 언론의 표현, 강조되는 사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담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비교하려고 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을 통해 이 방식을 언론학에서 보도 분석에 적용할 때, 항공 사고가 뉴스

콘텐츠의 변화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포진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도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방법이었다.

김영민(2001)은 포진이론이 미디어가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이론이 미디어의 다양성과 변화, 대중의 주체성과 참여,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훈(2012)은 포진이론과 미디어 프레임 이론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연구 방법과 분석 단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포진이론의 해동(Unfreezing), 이동(Moving), 고착(Refreezing)의 세 가지 국면을 사고 보도 분석의 과정과 프레임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영상의 프레임 분석을 위해서는 사고 당일부터 보도된 한미 뉴스의 내용이 각 국면에서 어떠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차현주, 권상희(2020)가 분류한 프레임의 혼합 방법에 착안하였다. 그들이 구분하고 주장한 바에 따르면 혼합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방법이다. 양적 연구는 수량적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고, 질적 연구는 담론 분석, 인터뷰, 문헌 검토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결과가 국내 항공 정책과 항공사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 정책실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자료 확인을 요청하였다.

자료요청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안전감독관 활동백서(2014)’와 ‘항공기 사고조사과정(2015)’ 두 가지 자료를 책자로 전달받았으며, 항공사측으로부터는 ‘OZ214편 사고 리뷰(2014)’를 확보하게 되었다.

항공안전감독관 활동백서(2014)는 2014년까지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책자로 제본, 보존되어 있었다. 때문에, 보존된 책자를 참고 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다.

2. 분석 방법

비교분석을 위해 르윈(Kurt Lewin)의 포진이론(Force Field Analysis)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국면으로 분류하였다. 포진이론의 3개 국면을 적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국면 별 언론 보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Unfreezing(해동) 국면이다. 이 국면의 기간은 사고 발생 직후로부터 48시간 이내인 2013년 7월 7일 ~ 2013년 7월 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로써 ‘초기 반응과 대응’ 단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의 최초 정보 제공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추정과 대응 조치를 중심으로 보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때, 피해자 수, 원인, 규모 등에 따라 보도의 중심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 국면을 48시간으로 정한 것은 사고 초기 상황이 빠르게 전파되고 변화하는 상황을 너무 짧은 시간, 예를 들어 24시간대로 분석하게 되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너무 긴 시간대로 분석하게 되면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Moving(이동) 국면이다. 이 국면은 2013년 7월9일부터 2013년 8월 2일 사이에 발생한 보도 영상과 담론들을 대상으로 관계 당국과 항공사의 시의 적절한 대처와 사건 전개에 대한 정보 제공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국면의 ‘원인 규명’ 단계에서는 관련 조사 과정과 담당자들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고 대응 단계에서는 항공사의 피해자 보상 및 대응 조치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한미간 뉴스 프레임의 차이 또한 예상되었다. 이를 통해 두 국가의 언론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어떤 담론이 강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Refreezing(고착) 국면이다. 이 국면은 2013년 8월 3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로 가장 긴 기간이다. 이 국면의 결과 반영 단계에서는 사고 결과, 교훈과 징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양국 언론이 어떻게 사고의 결과를 전달하는지 그 과정에서 차이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 국면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조치, 제도 개선, 안전 문화 변화 등을 검토하는 기간이다. 사고조사의 결과로 언론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담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포진이론의 세 가지의 국면 분류 방식은 정보 수집과 분석 단계들을 구분하며 최종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방식은 개별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거나 다른 연구들과 합칠 수 있어,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하기에도 용이할 것이다.

이 방식을 항공 사고 보도 분석에 적용할 때, 항공 사고가 뉴스 콘텐츠의 변화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포진이론이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보도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국면 분류 방식에서 연구자의 판단력이 개입될 수 있으며, 분류 기준의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할 점이었다.

이러한 국면의 분류 안에서 사고 방송 보도의 한미 양국 간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백선기(2003) 교수가 연구한 영상 화면을 언어 구조로 인식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백선기 교수가 분류한 클로즈업 또는 줌(얼굴과 상반신), 미디엄 샷(신체의 절반), 풀 샷(전신), 롱 샷(신체와 배경이 전체로 보이는 경우), 버즈 아이뷰(신체보다 배경 위주, 헬기 촬영 또는 전경)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삼고 분석에 참고하였다.

또한, 자막의 크기, 색깔, 그래픽 재연의 유형, 영상 반복 상태를 분석에 참고하였다. 분류를 위한 사건의 축은 사건의 발생과 전과, 조사, 수습, 해결, 마무리단계를 설정했다. 영상 화면은 수많은 정지된 샷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핵심내용이 나오는 순간들의 국면을 대표할 수 있는 보도들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각 국면을 근간으로 국면을 무난하면서도 잘 표출하고 있는 뉴스 영상을 선정하였다.

먼저, 언어의 서사 표현에 주목하여, 그것의 서사 구조와 의미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도 영상을 분석해오고 있는 백선기(2003)의 연구에 의하면, 영상 화면에 대한 기호학적인 분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도출되게 된다. 각 국면에서 영상 화면의 '샷'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데 TV 뉴스 영상 화면은 토론회 영상과 다르게 수 없이 연결되는 '샷'들의 연속이므로 이들 전체를 분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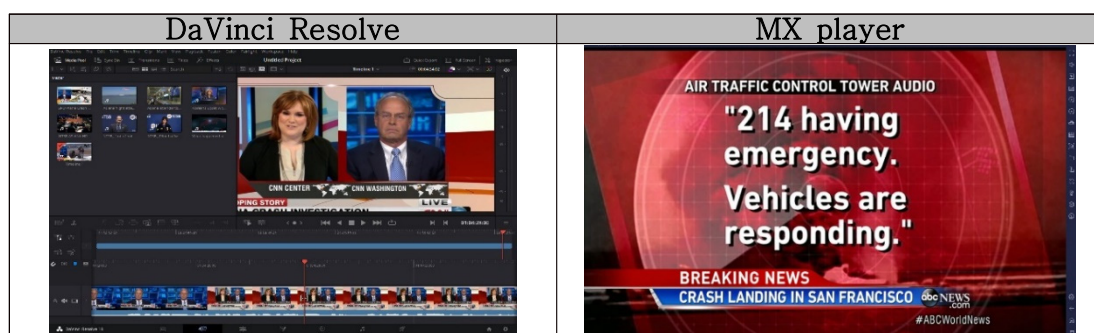
따라서 보도 영상 화면의 모든 '샷'의 분석이 사실상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뉴스 영상을 선별하고 영상 안에서 ‘샷’을 선택하여 그것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샷’의 전체를 분석할 수는 없었으며 각 국면에서의 특정 보도 영상과 멘트를 확인하여 가장 각각의 국면을 잘 보여주는 보도의 ‘샷’만을 분석하였다.

수집한 영상들의 ‘샷’ 분석을 위해서 <그림 1>의 다빈치 리졸브(DaVinci Resolve)와 엠엑스 플레이어(MX play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샷 분석 프로그램



이들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유는 프리웨어이면서도 사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영상에서 ‘샷’을 추출하기 위해 미세한 단위까지 전, 후 컨트롤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뉴스영상보도를 구성하는 영상요소들은 이종수(1999)에 의해 분류 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1)앵커멘트 화면, 2)사건 화면, 3)구성 화면, 4)로케이션, 5)자료 화면, 6)리포터 워딩 의 6가지 유목으로 나누어 <표2>의 내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뉴스 영상 구성의 요소들 중 ‘사운드’에 대한 분석 유목은 세부유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분석 유목 1과 6의 앵커 멘트, 리포터 워딩으로 같음하였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사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사운드는 NTSB,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과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뉴스에 차용되었기 때문이다.

< 표 1 > 분석 유목 (KBS, YTN, ABC, CNN 공통)

분 류	국면 별 내용분석 유목
앵커멘트화면	앵커의 상황 전파. 충돌장면 반복 송출
사건 화면	사고 현장의 재구성. 사고조사진행
구성 화면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 승객 피해와 보상
로케이션	사고현장, 사고조사, 피해자 등에 대한 카메라의 움직임. 각도, 조명 프레이밍
자료 화면	예상되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 자료화면 배치
리포터 워딩	사고 경위, 책임 찾기, 원인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른 예상 후속조치

실제 언론 보도의 영상 화면은 일반 대중들도 주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시청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포맷이나 내용들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TV 보도가 영상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언어의 초기 형태인 ‘그림’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치환된 ‘샷’의 분석을 통해 시각적 경험이 언어적 체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백선기(2003)에 의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TV 읽기” 내지는 ‘영상 화면 읽기’ 등과 같이 영상 화면을 ‘읽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영상 화면을 ‘언어구조’ 및 ‘언어문법체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상 화면도 일반 언어체계와 유사한 체계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기초로 하여, 각 국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상 화면을 서사 구조로 연계하여 영상 화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써 샷 분석과 더불어 반다이크(Van Dijk, 1985)가 ‘담론과 사회 (Discourse and Society)’에서 제시한 ‘담론구조분석’을 통해 문장구조, 단어선택, 프레이밍 등과 같은 텍스트

수준과 담론 수준 등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담론은 사회와 개인에게 영향을 주며,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그가 다양한 수준에서의 언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주제들 중에서 텍스트 수준, 담론 수준, 사회 수준의 세 가지 수준(level)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텍스트 수준(Text level)에서는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시맨틱, 프레이밍 등과 같은 언어적 요소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떻게 담론이 구성되고 이해되는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둘째, 담론 수준(Discourse level)에서는 텍스트 전체의 구조와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주제가 강조되고, 어떤 시각이 표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담론내의 인물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그들의 행동과 동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 수준(Social level)에서는 담론이 이 사고에서 어떻게 사회적 맥락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어떻게 사회적 가치와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담론 분석은 이를 도식화하여 세 가지의 수준(level)으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사건의 국면 분류에 따른 뉴스 영상의 ‘샷’ 분석과 담론구조분석으로 도출된 결론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뉴스 보도의 프레임과 그 형태와 형식이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보도량 분석 결과

KBS, YTN에서 보도된 377건의 기사와 ABC, CNN에서 보도된 총 196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그림 2> 보도 량 분석결과



이러한 패턴은 사고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개적인 관심도와 한미 언론의 보도 성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양국 보도에서 가장 많은 보도량으로 나타난 각각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KBS, YTN의 분석결과는 '사고 후 처리' 과정이 전체 기사의 38%로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음을 나타내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기사가 두 번째였는데, 이는 전체 기사 중 약 23%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사고 원인 파악과 과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ABC, CNN의 분석결과는 '사고 원인'에 대한 기사가 가장 큰 전체의 약 44%가 이 주제를 다루었다. 이 결과는 미언론보도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주제는 '사고현장'에 대한 기사로, 약 2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사고 발생지로써 현장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가장 많은 비율로 보도된 두 가지의 주제를 분석했을 때 한미 언론의 보도 초점이 서로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 방송사별 보도량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 표 2 > 보도기사 수량

방송사	YTN	KBS	CNN	ABC
기사량	204	173	99	97

한국의 대표적인 TV 방송사 중 2개 방송사에 대해 분석을 하였는데, 이번 사고에 대한 보도량에서는 전문 보도 채널인 YTN의 보도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보도 경향은 유사하며, 서사 구조와 담론의 영상 보도 경향도 크게 차이나는 점이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영상 뉴스의 비중과 수가 가장 많은 YTN을 주로 하고 KBS 보도에 대한 분석 또한 선정하였다.

미국 방송의 경우 사고 초기부터 전 세계로 동시번역되어 중계보도 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매체에서 재생산 및 참고하고 있는 CNN 뉴스를 주 분석방송으로 선정하였으며 ABC 방송을 또한 분석하기로 하였다.

YTN과 CNN 방송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24시간 뉴스를 전달하고 그것이 대부분 영상으로 이루어진 보도들이라는 점이다.

한국 매체의 사건 보도 수량이 미 언론의 배수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적기의 사고, 기체 결함 여부, 승무원에 대한 관심, 자국민 인명피해 유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되었다..



1.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 분석

(1)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영상 분석

< 표 3 >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영상분석

Number	샷(Shot)	Script
1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동체 꼬리 부분이 잘려 나갔고, 비행기 윗부분은 불에 타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3		인천에서 출발한 이 비행기에는 한국인 77명을 포함해 승객 2백91명과 승무원 16명 등 모두 3백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4		비행기 착륙 사고로 엔진 하나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는 360도 돌았고 연기가 피어 오르면서 불이 났습니다.
5		사고기가 멈춘 뒤 승객과 승무원들은 비상구를 이용해 탈출에 나섰습니다.
6		공항직원들이 활주로에서 비행기 탑승객들의 탈출과 구조를 도왔습니다.

7	 <p>FBI 테러 죄명은 밝혀지지 않아</p>	<p>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FBI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테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p>
8	 <p>한미 정부, 합동조사... 오늘 조종사 면접조사</p>	<p>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p>
9	 <p>한국 사고조사대행반, 샌프란시스코 도착</p>	<p>우리 사고조사 대책반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p>
10	 <p>박정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팀장 말단 살아있는 생존자를 송환 문제라든지, 무장자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p>	<p>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빨리 국내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사고 조사 원인 파악에도 참여해서 철저히 규명할 예정입니다.</p>
11	 <p>미 교통안전위원회 사고 조사반, 블랙박스 회수</p>	<p>먼저 사고 현장에 급파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 사고 조사반은 우선 비행 기록을 담은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p>
12	 <p>테일러 허스킨 / NTSB 위원장 조각난 조종실 어디에 몰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더 수집할 것입니다.</p>	<p>이번 조사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에 기반을 둔 모든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p>

13		관심의 초점은 양국 합동조사반이 실시할 사고 여객기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에 대한 면접 조사입니다.
14		통상적으로 항공기 사고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면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 1 국면에서 분석한 뉴스의 영상 화면은 모두 14개의 주요 샷(shot)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 번째 서사 구조는 ‘샷1’부터 ‘샷3’까지로 구성되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충돌’이라는 앵커 맨트와 표제로 시작하여 연기에 휩싸인 사고기의 모습을 원거리 샷으로 보여주고 있으며(샷2), 반파된 항공기의 근접 영상(샷3)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 초기 속보로 타전된 뉴스의 샷 들임에도 거리상의 제약과 제공 받는 영상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로 인해 다소 현장감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초기 서사구조에서 보여지는 샷들은 불가피하게 미국 측에서 제공하는 화면만을 송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샷들을 통한 서사구조를 통해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수용자들에게 사실적으로 시각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서사 구조는 ‘샷4’에서 ‘샷6’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의 탈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사상, 부상자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샷6’의 경우 공항직원들이 탈출과 구조를 도왔다는 브리핑 장면은 다분히 샌프란시스코 공항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고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양국 언론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미 합동 조사의 서사 구조로 수렴되는 ‘샷8’에서 ‘샷10’까지의 구조를 보면 앵커 샷 후 한국조사단장 샷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샷9의 자막은 한국 조사단이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으나, 전환된 샷 10에서 조사

단장의 인터뷰는 현지가 아닌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샷 전환의 흐름과 시점이 어긋남을 보였다. 제1국면 사고 초기 긴박한 상황 전개에 샷이 사건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 분석된다.

‘샷11’에서 ‘샷12’는 미측 조사단이 워싱턴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도착한 라이브 인터뷰 부분으로, 샷이 보여주는 현장감이 미 조사단 인터뷰 샷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

‘샷13’ 과 ‘샷14’는 샷의 전환 없이 사고기를 항공 근접 촬영한 자료 화면인 롱 테이크 영상으로, 장면 전환은 제외되고 영상으로 파노라마 샷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조종사와 승무원들에 대한 면접 진행과 그 결과의 예상 기간을 자막을 통해 전달하여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국면의 모습을 예상하도록 하였다. 이 국면에서 보도되고 있는 영상의 샷들은 한국언론으로서는 충분한 자료 화면을 얻을 수가 없고 이전 영상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첫 국면에서 뉴스 영상의 샷은 언어 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와 별개로 영상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사고의 규모와 항공기 상황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에 더해 그들의 상상력과 현장 영상이 더해져 의미의 더하게 된 것이었다.

(2)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제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의 표면적인 측면은 사건 발생 시점의 상황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초기에 언론은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속보 보도를 대거 방송했는데, 이들에게는 반파되고 화재로 녹아내린 동체, 유실되어 바닥에 떨어진 꼬리 부분, 그리고 대피한 승객들의 영상 및 사진 등이 포함되었다.

이 모습은 미국 현지로부터 인용된 영상과 기사를 통해 긴장감이 높아진 사고 현장을 전달하고 있었다. 대피한 승객들의 모습은 자연스레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담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인명피해에 대한 담론은 한국인 사망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간결한 멘트로 전달되었다. 이것은 초기 사건 발생 시 언론의 관심이 인명피해에 비교적 적었음을 시사했다.

비록 사고 상황과 현장 수습에 관한 담론이 반복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되었지만, 이후의 담론은 사고 원인을 핵심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었다.

사고 원인으로 예상되는 항공기 결함 및 조종사의 인적 실수가 중심적인 담론으로 다루지고 있었지만, 조종사의 실수와 관련된 논쟁보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 기사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과 공항 관계 당국의 대처와 공항시설에 일부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표 4 >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한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분석 수준 (Level of analysis)	분석 요소 (Component of analysis)	분석 결과 (Analytical findings)
텍스트 수준 (Text level)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사고 발생과 사고 상황 전과의 목적을 위해 초기 정제되지 않은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음 한미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한 정보, 인터뷰 진행 상황을 전면 배치.
	단어선택 (Word selection)	활주로 충돌, 승객 사망과 부상, 탈출과 구조, 사고 원인을 강조. 한미 정부, 합동조사, 생존자 송환, 사고원인, 기체결함, 승무원 면접 조사.
	시맨틱 (Semantic)	대립적 의미 요소, 원인과 결과 구조, 주체 및 책임 요소, 강조와 완화 등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는 텍스트 수준의 의미구조를 형성 사고 원인에 대한 담론으로 공항 시스템 오류, 조종사 과실, 기체 결함, 사고 대응에 대한 담론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추가조사, 조종사 교육 재검토, 기술적 결함 대응을 제시. 인명피해에 대한 담론으로 추가 사망자 발생,
	프레이밍 (Framing)	사고 원인 프레임, 인명피해 프레임, 사고수습 프레임. 이러한 프레이밍을 통해 사고 원인을 기술재난에 중점을 두고, 인명피해는 상대

		적으로 적다고 강조하며, 사고수습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부각시키는 텍스트 수준의 프레임िंग을 보여줌. 이 프레임들은 책임자와 대응방안을 규명하고, 사고 예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강조하며 사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함.
담론 수준 (Discourse level)	전체 구조 (Overall structure)	사고 원인에 대한 담론에서 기술적 재난과 조종사의 실수가 핵심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도장치 오류와 항공기의 랜딩기어 결합 가능성을 강조하며, 조종사의 책임보다 항공기와 공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며, 사고현장과 사고수습에 관한 담론은 아시아나항공, 한국 정부, 미국 당국의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진행.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시스템 오류나 기계적, 기술적 결함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담론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임.
사회 수준 (Social level)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항공기와 공항의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하며, 아시아나항공, 한국과 미국 당국간 협력을 부각시키고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줌. 이러한 대응은 항공 사고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우려, 항공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 협력 및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 담론의 결과로 현지 교민들과 지역 사회에 조종사 인적 과실일 경우에 야기될 사회적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국내 언론은 이 국면에서 공항시설,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조종미숙 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임무 조종사의 문제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항공기 시스템의 문제라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이 사고가 기계적, 기술적 재난이라는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임무 조종사들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추락 사고에 대한 담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도되고 있었다. 현지

공항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담론에서는 공항의 착륙유도장치(ILS)와 공항 관제탑의 고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종사 과실에 대한 담론은 해당 조종사의 경험 미숙설과 교관 기장의 지시 미숙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항공기 기체 결함에 대한 담론은 한 달 전 해당 기종의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 사례를 추가 보도하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담론들과 관련하여 아시아나는 원인에 대한 추가조사 증임을 발표하였다. 인명피해에 대한 담론은 추가 사망자 발생에 따라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이번 추락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2.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 분석

(1)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 영상 분석

< 표 5 > 제 2 국면 Moving(이동) 영상분석

Number	샷(Shot)	Script
1		<p>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비행의 모든 책임은 경험이 풍부한 교관 기장에게 있다며, 조종 미숙설을 반박했습니다.</p>
2		<p>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주로 부상자 현황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p>

3		<p>착륙 당시 기장 역할을 맡은 이강국 조종사가 경험이 부족해 사고가 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p>
4		<p>이어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경험 있는 기장만 배정하고 공항과 기종 특성에 맞춰 시뮬레이션 훈련을 거친 뒤 비행하기 때문에 조종 미숙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p>
5		<p>윤 사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NTSB와 사고조사단의 조사 결과, 그리고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보면 모두 드러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6		<p>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숨진 중국인 학생들의 유족이 법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7		<p>아시아나기 사고를 둘러싼 대규모 법정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p>
8		<p>중국인 학생 희생자 3명의 가족이 미국 로펌 크레인들러 소속 유명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p>

9		<p>이 로펌은 앞으로 유족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등 각종 소송을 대리할 방침입니다.</p>
10		<p>소송대상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사고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11		<p>미국 당국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예명위안의 경우 착륙사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현장에 급하게 출동한 소방차에 치여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p>
12		<p>크레인들러 측은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에 사진과 동영상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화시보는 전했습니다.</p>
13		<p>이에 앞서 일부 승객이 이미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중국인 탑승객 등 83명이 기체 결함을 들어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p>

이동국면(Moving) 서사 구조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샷1’의 앵커 멘트와 ‘샷2’로 연결되는 아시아나항공 운영두 사장의 브리핑 영상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 첫 번째 서사에서 보이는 항공사의 현재 입장은 피해를 입은 부상자와

가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화면에서 브리핑실을 가득 메운 내외신 기자들을 화면에 비춰줌과 더불어 질문을 쏟아내는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기자들의 관심사가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에 모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였다.

두 번째 서사 구조인 ‘샷3’에서 ‘샷4’에 걸쳐 영상은 운영두 사장과 사고기의 모습, 사고기에서 조사 활동 중인 NTSB 요원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운영두 사장의 반박 브리핑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

세 번째 서사구조에서 ‘샷5’는 사고기 교관 기장이 베테랑 기장이었던 만큼 NTSB의 조사결과와 블랙박스 분석결과를 기다려줄 것을 기자들에게 당부했음을 리포터 맨트로 마무리했으나, 영상과 샷은 반복해서 NTSB와 반파된 항공기만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베테랑 교관이라는 해명에 힘을 빼는 효과를 내게 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세 번째 서사 구조인 ‘샷6’, ‘샷7’은 이번 사고로 숨진 중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이 소송을 추진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소송에 대한 참고 영상은 앵커 멘트 샷에서 전환된 샷7의 전체를 1/2로 분할, 맞은편에 베이징 특파원을 배치하여 서울과 베이징의 심리적 거리를 압축시켰다. 뉴스 초기 이 같은 배치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에게 현장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베이징 특파원 후방에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이 사실적으로 어우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

네 번째 서사구조에서 ‘샷8’과 ‘샷9’는 의도된 배치, 인물, 배경은 드러나지 않고 파손된 항공기만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된 화면과 동일한 이러한 배치는 첫 번째 서사에 이어 중국과 관련한 자료 화면을 기대했을 수용자에게 충분한 의미 전달에 있어 부족한 모습이었다. 또한, 자막을 통해서만 제조사와 소방당국을 소송대상으로 표기하면서 그 대상을 화면에 배치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필요에 의한 충분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언어 기사에 따라 제조사와 소방당국을 상징하는 샷도 포함시켜 시청자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서사 구조의 ‘샷10, 11, 12’ 모두 항공사와 관련한 화면을 배치하고

있다. 특파원 워딩과 자막은 아시아나, 제조사 보잉, 소방당국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샷의 배치는 모두 아시아나를 상징하고 있다. ‘샷10’은 항공사의 마크(CI)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어 아시아나가 소송 대상임을 시각적으로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 언어 기사의 흐름에 따르면 이어지는 ‘샷11, 12’는 제조사와 소방당국을 상징하는 샷을 전면 배치하여야 했을 것이나 아시아나의 마크와 모델만을 노출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샷 13’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내부 구조물과 탑승을 위해 라인업 중인 승객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고 이후 정상화된 현지 공항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분석결과, 뉴스가 실질적인 자료를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언어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는 인물이나 명확한 의사 전달이 없는 다수의 영상과 샷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분석으로, 일관성 없는 영상의 제공 방식이 뉴스가 필요로 하는 의미 전달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 표 6 > 제 2 국면 Moving(이동) 한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분석 수준 (Level of analysis)	분석 요소 (Component of analysis)	분석 결과 (Analytical findings)
텍스트 수준 (Text level)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기체 결함과 조종사의 실수에 대한 비교 분석, 인명피해 정보, 승무원 귀국에 대한 정보. 중국인 희생자, 배상과 소송, 사후 처리 과정에 집중, 기체 결함에 대한 일부 인정 가능성 청문회를 통해 첫 언급.
	단어선택 (Word selection)	조종사 실수, 기체 결함, 인명피해, 승무원 귀국, 피해 보상, 희생자, 소송, 사고처리, 자동항법장치 오류.
		사고 원인에 대한 담론은 기체 결함과 조종

	시맨틱 (Semantic)	사 실수로 나누어지며, 시간 경과에 따라 조종사 실수가 강조되어 짐. 인명피해 담론은 사망자 수와 원인, 그리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아시아나항공의 사고 해결 의지는 1만 달러 선지급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캐빈승무원 복귀 소식을 통해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중국인 희생자들로 인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와 상호작용,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인적, 기술적 재해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대응 방안, 공공안전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
	프레이밍 (Framing)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을 다루며, 사고로 인한 피해와 아시아나항공의 대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승무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와 같은 프레이밍은 사고로 인한 피해와 함께 항공사의 책임, 인명피해, 승무원들의 역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에 대한 논의와 아시아나항공의 대처 방식을 평가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인의 사망과 희생자' 이슈 및 이와 관련된 담론들,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과 기체 결함 가능성에 대한 담론.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담론중에서도 일부 기체 결함 가능성에 대한 프레이밍이 주를 이룸.
담론 수준 (Discourse level)	전체 구조 (Overall structure)	원인에 대한 논란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실수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음. 인명피해 관련 담론에서는 사망자와 법적 측면을 강조하며 논리를 구성함. 아시아나항공의 의지에 관한 담론은 책임과 배려를 중심으로 한 논리를 구성하고 있음. 캐빈승무원 복귀에 관한 담론은 회복 과정을 다루며 논리를 전개함. 사고 원인과 관련한 기술적인 측면과 '중국인의 사망'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담론들이 혼합되어 전체적인 담론 구조를 형성함.
사회 수준 (Social level)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항공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 법적 책임과 피해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회복과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중국인의 사망에 대한 이슈는 외교, 국제정

		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 이를 통해 이 글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으로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와 소송, 배상 문제 등과 같은 내용은 법률,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임.
--	--	---

이 국면에서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의 논란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의 실수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의 담론으로 나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에 직접적이라는 보도 경향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종사가 자동 조종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이 사고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공사 측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조종 미숙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발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한편, 인명피해에 대한 담론으로는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서는 사망자 3명이 발생하였으며, 추가로 사망한 한 명의 사망 원인도 발표 및 보도되었다. 추가 사망자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앰블런스 운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보도들로 담론이 마무리 지어졌다.

항공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1만 달러를 선지급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사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론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사고기의 캐빈승무원들에 대한 보도도 이루어졌다. 승객 탈출 과정에서 완벽한 조치로 이번 사고의 ‘영웅들’이라고 찬사를 받고 당국의 조사를 마친 캐빈승무원들이 일상에 복귀한다는 사실과 귀국 후의 기자회견이 담론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중국인의 사망이라는 이슈가 크게 다뤄졌으며, 이는 여러 가지 담론과 함께 다루어졌다. 우선, 중국인 희생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중국인 학생이 추가로 희생되었다는 담론과 배상 문제에 대한 담론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중국 여학생의 사망에 대한 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녀의 사망은 구급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로 인한 법적 소송과정에서 이뤄진 구급대원의 불기소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라는 비판적 담론이 중국 언론의 반응을 인용해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중국인의 분노'라는 이슈와 연결되어, 중국인의 사망에 대한 부분이 더욱 부각 되는 역할을 하였다. CNN 보도를 인용한 사고 청문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후 후속대응이나 처리 과정에서 미흡함을 보였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기체 결함에 대한 논란이 일부분 인정되었으며, 자동항법장치의 오류와 공항 착륙유도장치의 작동 불능으로 인해 사고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렇듯 이 국면에서는 일부 기체결함 가능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이동국면(Moving)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인명피해, 아시아나항공의 사고 해결 대처, 그리고 운항 승무원들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담론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담론들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사고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3.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 분석

(1)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 영상 분석

< 표 7 >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영상분석

Number	샷(Shot)	Script
1		<p>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는 미국 측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p>

2		<p>전미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아시아나 214편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종사들의 숙련도 미숙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습니다.</p>
3		<p>사고 직후부터 문제로 꼽혔던 자동속도조절장치의 작동법을 조종사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하게 의존했다는 겁니다.</p>
4		<p>그러면서 이 장치에 대한 복잡한 설계와 작동이 중단되면 알리는 경보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TSB는 조종사가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인지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p>
5		<p>자동장치는 설계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기계장치가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하는지 조종사가 이해했는지 여부입니다.</p>
6		<p>우선 NTSB가 사고 원인 조사 활동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법정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p>
7		<p>이번 계기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될 뿐 아니라, 보상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8		<p>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이 꼽힌 데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p>
9		<p>NTSB가 사고 원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점을 적절히 인지했다고도 인정하고 NTSB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p>
10		<p>NTSB가 권고한 훈련프로그램 개선과 매뉴얼 개정 등은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11		<p>사고 이후 지난 1년간 조직과 훈련, 시스템, 안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p>

고착국면(Refreezing)의 서사 구조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구조는 ‘샷1’과 ‘샷2’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사고의 조사 결과를 알리는 앵커의 맨트뒤로 리포터와 앵커를 같은 화면에 배치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샷에서의 이런 배치는 3국면에 이어서 한국 뉴스영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샷 2’에서 리포터는 현장이 아닌 국제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배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 내에서의 이런 방식의 구성은 한국 뉴스영상에서 흔히 보이는 기법이다. 이는 뉴스 제작 현장을 의도적으로 화면에 드러냄으로써 국제적인 관심도를 부각시키고, 전체적인 신뢰감을 높인다.

두 번째 서사 구조인 ‘샷3, 4, 5’에서는 NTSB의 사고 조사 발표 청문회장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샷’3에서 청문회 위원석과 성조기를 샷 전체에

담고 있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시청자로 하여금 ‘공신력’에 의문을 갖기 어렵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되었다.

‘샷 4’는 단상 주변의 위원들과 관계자를 담고 있는데 발표자를 클로즈업한 거대한 영상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모습을 배치하여 청문회 발표장의 규모와 사회적 관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다.

‘샷 5’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단독 샷인데, 샷은 발표자의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교나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있어 시청자들을 집중시키며 높은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 청문회 발표회장의 화면은 실제 한국 언론이 촬영한 라이브 화면이 아닌 CNN의 자료 화면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막을 통해 의도한 바를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세 번째 서사구조에서 ‘샷6’은 국제부 기자를 다시 조명하고 있는데 이 샷을 통해 뉴스의 무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었다.

‘샷 7’에서야 비로소 사고 당시 항공기의 샷을 등장시켰다. 이것은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기자의 워딩을 시청자들에게 언어가 시각적 자극으로 연결되는 작용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네 번째 서사 구조는 아시아나에 대한 주제로 이동하였는데, ‘샷8’은 아시아나 본사를 클로즈업한 샷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샷9, 10’에서 본사 건물을 배경으로 이동중인 승무원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승무원들을 등장시킨 이러한 샷은 자칫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샷이다. 이 샷은 이미지 반전의 효과에 더해 회사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사고 당일 용감한 행동으로 영웅으로 기억됨을 시사하였다. 기업 내부를 촬영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촬영 장소나 구도, 카메라 앵글의 변화를 줄 수 없는 환경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샷의 구성이 이해될 것이다.

‘샷11’에서는 항공기 조종석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조종사 훈련 강화에 대한 기사를 부각하고자 배치한 샷인 것이다. 그러나 항공기의 조종석은 촬영에 대해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 장소이므로 샷11에서 보이는 조종석의 모습이 일부만 식별 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2)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 표 8 >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한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분석 수준 (Level of analysis)	분석 요소 (Component of analysis)	분석 결과 (Analytical findings)
텍스트 수준 (Text level)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국면으로, 이 국면의 보도는 다소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또한 직설적이고 객관적인 문장 구성을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여 뉴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이 글은 항공산업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와 수식어 등이 빈번하게 사용됨.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만큼 전달 방법과 내용에도 많은 부분이 고려되었음.
	단어선택 (Word selection)	최종심의, 징계, 공식사과, 운항정지, 재심의.
	시맨틱 (Semantic)	NTSB 최종 조사결과 발표 화면, 아시아나 항공 발표 화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자료화면 등을 주로 배치. 중립적이고 직설적인 문장 구성이 많이 사용.
	프레이밍 (Framing)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 벌금과 징계에 대한 보도, 사고 원인 발표와 징계에 대한 보도에서 중립적인 담론 유지, 아시아나 항공의 공식 사과와 수용, 교육훈련 강화.
담론 수준 (Discourse level)	전체 구조 (Overall structure)	복잡한 사건에 대한 최종 국면의 보도들이며, 항공산업과 관련된 이슈, 책임문제, 사고 발생 원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음. 이 국면의 보도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p>사회 수준 (Social level)</p>	<p>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p>	<p>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공공안전, 항공산업의 문제로 논의 되었음. 따라서 이 글의 사회 수준은 국내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 사고는 대중들의 관심을 매우 끌었으며, 국내의 항공산업과 공공안전에 대한 문제로 논의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함. 2013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이 당시 국내는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국내의 다양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비롯하여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파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이 사고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다루어졌으며, 항공사와 국가 간의 책임 문제가 논의되었음.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 사고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재고되었음.</p>
---------------------------------	------------------------------------	---

제 3 고착국면(Refreezing) 국면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로 미국 NTSB의 발표를 중심으로 담론이 전개되었다. 미국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발표하면서,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자동조종시스템의 결함 가능성도 일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는 시스템의 결함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를 훈련된 조종사가 직접 컨트롤하여 사고를 예방하게 하는 것이 항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을 인용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의 각오를 보도했다.

또한 후속 조치의 일부인 벌금과 징계에 대한 담론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벌금 부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정과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 조종사 훈련의 부족, 훈련 체계의 재검토라는 원인분석에 대한 사실만을 보도하여 해당 징계에 대한 중립적인 담론을 유지했다.




이처럼, 이 최종국면에서 뉴스는 사고 원인 발표와 징계에 대한 보도에서 여러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담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 45일의 중징계에 대해서 국내외 항공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의에 선처 탄원을 보도하는 동시에, 국내 경쟁 항공사의 입장은 이번 징계가 충분치 않다는 내용을 보도 함으로써 국면을 정리하는 담론을 형성했다.

4.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 분석

(1)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 영상 분석

< 표 9 >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국면 영상분석

Number	샷(Shot)	Script
1		워싱턴에서 NTSB는 이미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제 ABC의 David Curley 기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매순간을 보도합니다.
2		아시아나항공 B777은 꼬리날개가 빠진 채로 활주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		OZ214 항공기는 비상 차량이 응급 대응하도록 부르기 시작합니다.

4	 <p>AIR TRAFFIC CONTROL TOWER AUDIO "214 having emergency. Vehicles are responding." BREAKING NEWS CRASH LANDING IN SAN FRANCISCO</p>	<p>항공기에 응급 차량이 도착했습니다.</p>
5	 <p>BREAKING NEWS CRASH LANDING IN SAN FRANCISCO</p>	<p>이 항공기는 자동 조종기를 사용하여 착륙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기종입니다.</p>
6	 <p>abc NEWS</p>	<p>NTSB의 조사팀은 워싱턴을 떠나 LA에서 온 3명의 조사관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p>
7	 <p>BREAKING NEWS CRASH LANDING IN SAN FRANCISCO</p>	<p>조종사들과 함께 항공기의 두 개의 블랙박스, 특히 Flight Data Recorder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할 것입니다.</p>
8	 <p>NEW YORK SAN FRANCISCO NEW DETAILS PLANE TOO LOW AND SLOW IN FINAL SECONDS COCKPIT VOICE RECORDERS REVEAL DETAILS</p>	<p>단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p>
9	 <p>NEW DETAILS PLANE TOO LOW AND SLOW IN FINAL SECONDS COCKPIT VOICE RECORDERS REVEAL DETAILS</p>	<p>조종실 음성 녹음기와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에서 매우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기계적 결함의 증거는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p>

10		<p>저희 팀이 조종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11		<p>파일럿이 우려하는 점이 있나요? 저희가 조사에서 살펴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p>
12		<p>경험 많은 조종사에게서 발생하는 사고와 차이가 거의 없는 조종사에게서 발생하는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p>
13		<p>두 승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p>
14		<p>Crew resource management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p>

제1국면에서 분석한 영상 화면은 모두 14개의 주요 샷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 번째 서사 구조는 ‘샷 1’의 앵커 오프닝 샷인데 한국의 앵커 멘트가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ABC 앵커는 단독 샷 안에서 표정, 자세의 변화,

소리의 고저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드라마틱한 점이 관찰된다. 앵커의 오른쪽에 배치된 그래픽은 입체적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뉴스의 시작부터 시청자를 끌어드리는 흡입력에서 한국 뉴스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서사 구조는 ‘샷2’에서 ‘샷4’을 통해 사고기의 파편과 반파된 항공기 동체, 화재 진압 장면을 제공해주고 있다. 샷2에서 ABC는 항공 자체 카메라의 시선을 항공기 파편 중심으로 선회하며 시청자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샷2’의 항공기 파편 샷 구성은 한국 언론이 1국면에서 시도할 수 없는 현장감 넘치는 샷이었다.

‘샷3’에서 카메라는 사고기의 화재 진압 장면을 최대한 확대하여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고정하였고, 타워와 조종사의 통신을 자막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통신 내용을 들려주어 샷2에서 항공기 잔해에 고정된 시선을 시각과 청각의 집중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샷4에서 영상은 붉은색의 정지된 샷으로 변화하고 통신내용을 화면 전체에 자막으로 배치하여 응급차량의 이동과 도착이 비상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온전히 전달하고 나타내었다.

세 번째 서사 구조는 샷5에서 샷7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샷5에서 사고기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종임을 긴 설명 없이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있다.

샷5의 공항을 내려다보며 활주로가 보이는 구성은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샷을 선택하고 있다. 이 샷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샷6에서 카메라는 사고조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미국측 조사단장이 등장하고 있다. 샷 6은 한국 언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 뉴스에서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제대로 갖춰진 시간과 공간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반해 이 샷에서는 야외 주차장 한 켠에서 임시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샷 안에서 조사단장은 긴박한 현장 상황을 침착한 모습으로 브리핑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 샷은 어떠한 카메라 기교나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는 것이다.

샷7은 블랙박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종석을 비추고 있다. 이 샷은 내용과 샷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샷의 구도등에 관계없이 의미 전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 서사 구조로 샷8은 앵커와 현지 조사단장을 나란히 등장시켜 현장감을 주고 있다. 한국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방식인데 배경을 붉은색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붉은색을 제한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한국 언론과 비교해 미 언론은 자극적인 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사고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측 조사 단장의 인터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샷9에서 카메라 샷은 단독 전체 샷을 통해 조사 단장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샷에서 뉴스의 리포터나 앵커와 같은 단독 구성을 조사단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해볼 부분이다.

샷14에서 조사단장을 단독 샷으로 다시 ‘클로즈업’하며 조종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면서 뉴스가 마감된다.

이때 클로즈업샷과 조종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맨트가 동시에 이뤄진 것은 집중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기에 적절한 구성이었다.

제 1 국면에서 대표로 분석한 뉴스 영상의 샷을 분석해보면 너무 이른 시기에 조사 단장의 회견식 인터뷰로 조종사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2)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ABC와 CNN은 사고 보도의 1단계에서 사고 현장과 사고 원인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에 집중했다. ABC는 사고 원인에 대해 B777기종 결함과 조종사의 기술 부족 등 두 가지 가능한 원인을 보도했다. CNN은 결함 가능성을 짧게 언급했지만 조종사의 훈련과 기량 부족을 둘러싼 담론에 무게를 실었다. ABC, CNN은 B777 기종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항공기 시스템의 이상 시 조종사가 수동으로 항공기를 조종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를 강조했다.

이러한 담론 형성은 항공기의 기술 장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부각시켰으며, 조종사의 기계와 자동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표 10 > 제 1 국면 Unfreezing(해동) 미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분석 수준 (Level of analysis)	분석 요소 (Component of analysis)	분석 결과 (Analytical findings)
텍스트 수준 (Text level)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사고의 원인과 사고 현장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음. 가능한 기체 결함과 관련된 기계적 오류와 자동 조종 시스템의 오작동, 조종사 과실, 조종사의 경험 부족과 뒤늦은 조치를 전면 배치.
	단어선택 (Word selection)	활주로 이탈, 과편, 탈출과 구조, 사고 원인, 조종사 기량, 기계적 오류, 기체 결함, 조종사 과실, 조종사 경험 부족, 자동화에 의존, 대피시 안전.
	시맨틱 (Semantic)	사고의 원인과 사고 현장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음. 이를 통해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시청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음. 사고 원인과 관련된 두 가지 담론과 조종사 과실과 관련된 두 가지 담론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이 글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기술적인 정보와 안전 절차, 그리고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등 항공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음.
	프레이밍 (Framing)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것.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미국 NTSB의 발표를 바탕으로 조종사의 실수가 주된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기체 결함 가능성도 언급함, 전반적으로는 사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로 프레이밍됨.
담론 수준 (Discourse level)	전체 구조 (Overall structure)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를 보도하고 주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뉴스들은 항공기 결함의 가능성에 대해 논

		<p>의하지만 궁극적으로 기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가능성과 함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종사의 실수를 강조함. 이 뉴스들은 사고 현장의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상자 수를 언급하며 인명 손실에 초점을 맞춤.</p>
<p>사회 수준 (Social level)</p>	<p>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p>	<p>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공사와 조종사의 책임과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담론은 또한 기술의 역할과 기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 이러한 위험은 항공 안전 및 책임, 산업 및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때문에 담론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과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p> <p>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인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고. 사망자 중 중국인 학생이 있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적인 측면도 반영됨. 또한,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항공사와 구조대 등의 대처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담론이 다루어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p>

ABC에서는 사고 원인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담론을 보도했다.

첫 번째 담론은 기계적 오류와 자동 조종 시스템의 오작동을 포함하여 가능한 기계 결함에 관한 것이었다. 사고 당시 탑승한 사망자들과 관련하여 좌석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담론은 조종사의 과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ABC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당시 항공기의 착륙을 위한 활주로 접근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한 조종사의 뒤늦은 인식과 고 어라운드(Go Around), 즉 착륙 취소 결정이 늦은 것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비행 경험이 43시간에 불과한 B777 조종사의 경험 부족이 초기부터 부각되었다.

CNN에서는 이번 사고가 조종사로 하여금 항공기의 자동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심각한 오류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종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담론으로 승객 대피 과정에서 짐을 들고 탈출한 승객들을 비판하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강조했다. 대피 절차, 안전 카드, 승무원의 안내 등이 포함된 안전 메시지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승객들에게는 비행 내내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할 것을 당부하였다.

5.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 분석

(1)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 영상 분석

< 표 11 > 제 2 국면 Moving(이동) 영상분석

Number	샷(Shot)	Script
1		워싱턴 지사의 스티브 윌리스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스티브는 미국 연방항공청 사고조사국장을 지낸 분입니다.
2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사고 당국인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NTSB는 즉시 Go 팀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4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의 내용에 대해 NTSB가 바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종사에 대한 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5	 <p>DEVELOPING STORY ASIANA CRASH INVESTIGATION Seoul: Pilot had 43 hours of experience flying the B777-200</p>	<p>지금까지 그 비행기의 조종사들에 대해 들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6	 <p>WASHINGTON DEVELOPING STORY ASIANA CRASH INVESTIGATION U.S. and South Korean investigators have interviewed all four pilots</p>	<p>NTSB 위원장과 방금 전 항공사 사장이 현 시점에서 원인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분명한 것은 데이터에 따르면 비행기가 너무 낮고 너무 느려졌다는 것입니다.</p>
7	 <p>DEVELOPING STORY ASIANA CRASH INVESTIGATION Seoul: Pilot had 43 hours of experience flying the B777-200</p>	<p>NTSB가 발표한 예비 정보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다면, 그리고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이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아니라 이 조종사에 의해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p>
8	 <p>WASHINGTON DEVELOPING STORY ASIANA CRASH INVESTIGATION Seoul: Pilot sitting in captain's seat identified as Lee Kang-uk</p>	<p>이 조종사는 작은 비행기와 더 큰 비행기인 747에 대한 경험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이러한 기본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p>
9	 <p>DEVELOPING STORY ASIANA CRASH INVESTIGATION NTSB: Pilots tried to abort landing 1.5 seconds before impact</p>	<p>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회항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트 엔진은 순식간에 최대 출력을 내지 않습니다. NTSB에 따르면 이 제트 엔진은 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너무 낮고 느려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p>
10	 <p>WASHINGTON DEVELOPING STORY ASIANA CRASH INVESTIGATION NTSB: Plane was well below the target air speed for approach</p>	<p>계기 접근, 특히 계기 착륙 시스템 활주로 기능이 당시 이 공항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오늘처럼 맑고 화창한 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무원은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p>

11		<p>사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80년대에 미연방항공청과 세계 여러 당국이 사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의무화한 규칙입니다.</p>
12		<p>일부 생명을 잃은 것은 비극적이지만 생존 능력, 생존율, 물론 방금 중요한 역할을 한 최초 대응자들이 매우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을 했기에 생존율은 매우 높았습니다.</p>
13		<p>이제 우리는 조종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빨리 하강한 것이 분명합니다.</p>
14		<p>조종실 음성 녹음기에서 추락 52초 전에 조종실 뒷좌석에 있던 부기장이 비행기가 너무 빨리 하강하고 있다는 경고를 외쳤습니다.</p>
15		<p>“Sink rate” 이 경고는 영어와 한국어로 반복되었습니다.</p>
16		<p>그는 조사관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자신이 없으며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p>

17		<p>그는 또한 계기 접근법 없이 시각적으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p>
18		<p>하지만 다른 조종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p>
19		<p>자동화는 조종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를 보조하는 도구로 적용합니다.</p>
20		<p>NTSB 조사관들은 조종사들이 기술에 너무 의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p>
21		<p>그래서 비행기를 설계할 때 승무원이 비행 중 중요한 순간을 매우 잘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p>
22		<p>사고 생존자 벤 레비는 비행기가 추락한 직후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p>

23		대부분의 승객과 마찬가지로 그는 일과 가족에 집중하고 싶으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4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고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제 2 이동국면(Moving)이 사고기 가장의 조종 미숙, 경험부족 등에 대한 아시아나 측의 부인이 주요 맥락인데 반해서 CNN은 NTSB 전 조사 국장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의 샷들은 장면 이동, 전환 등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서사 구조의 ‘샷1’에서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그래픽 처리로 뉴스가 진행될 장소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에 앵커가 먼저 등장하지 않는 화면 배치는 주로 특정 이슈를 강조하거나 뉴스 속보에서 보이는 형식이다.

CNN은 이에 더해 가상의 스튜디오 배경을 붉은색으로 배치하고 지도를 흰색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자막 타이틀과 CNN 로고(Logo)에 모두 붉은색을 사용했다. 샷1에서 붉은색의 비중은 이처럼 크다. 일반적으로 붉은색은 상징성이 풍부하고 종종 위험을 나타내거나 경고를 연상시키는 만큼 의도된 선정이라고 분석된다.

샷2에서 앵커와 인터뷰어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데, 붉은색 배경을 그대로 두고 있는 모습이 인터뷰의 중요도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서사 구조로 ‘샷3’는 인터뷰어가 있는 공간으로 샷을 확대하며 인터뷰어를 중심으로 배경은 붉은색에서 전체 푸른색으로 변화하여 공간이 이동하였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샷4부터의 화면 구성은 일괄적으로 동일한데 화면 왼편에 앵커를 배치하고

오른편에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반복되는 장면 없이 재생하고 있다.

샷4부터 10까지의 화면 구성은 동일하나 인터뷰어가 견해를 제시하면 샷이 전환되고 앵커가 등장하며, 앵커에 의해 짧게 정리된 후 질문을 이어간다.

이렇게 샷10까지 앵커와 인터뷰어가 질의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샷의 진행이 일면 단조로워 보이기도 하나 샷의 전환마다 화면 하단의 자막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 대상의 워딩은 NTSB의 이례적인 브리핑 내용, 사고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을 제외하고 샷에 집중하여 분석결과 음성정보와는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상 하단에 자막 처리되고 있는 ‘DEVELOPING STORY’를 분석해보면, 7개의 자막이 1분 30초여 간격을 두고 순환하고 있다.

‘샷 4’ ‘Airline president complains about “speculation” regarding pilot experience’,

‘샷 5’ ‘Pilot was making his first Boeing 777 landing at SFO airport’

‘샷 6’ ‘U.S. and South Korean investigators have interviewed all four pilots’,

‘샷 7’ ‘Pilot had 43 hours of experience flying the B777-200’,

‘샷 8’ ‘Pilot sitting in captain’s seat identified as Lee Kang-kuk’,

‘샷 9’ ‘Plane was well below the target air speed for approach’,

‘샷 10’ ‘Pilot was making his first Boeing 777 landing at SFO airport’

세 번째 서사 구조로 샷 11에서 화면은 인터뷰어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이때의 자막은 샷10에 이어 ‘Pilot was making his first Boeing 777 landing at SFO airport’를 고정하고 있다. 샷12에서 가상 스튜디오로 돌아와 앵커와 인터뷰어를 다시 같은 공간에서 보여주는데 하단의 자막은 뉴스의 정리 멘트에도 “Pilot was making his first Boeing 777 landing at SFO airport’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서사 구조는 사고 당시의 항공기 상태와 조종석 통신 핵심 내용을 커다란 자막으로 화면 상부에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데스크의 의도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뉴스의 도입부부터 ‘샷 12’는 시각적 충격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충돌 당시를 강조하면서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시청자의 눈앞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샷13’에서 ‘샷18’로 이어지는 샷은 그래픽으로 상황을 재연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와 의미를 자막의 형태를 빌려 기호화시키고 있다. 각각의 샷은 화면 전환에 따라 ‘Felt he should study more’, ‘Difficult’, ‘Stressful’, ‘Not confident’를 볼드(Bold)체로 커다랗게 노출시킨다. 이를 통해 각 샷에서 사고 당시 조종사의 상황과 심리에 대한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시청자의 눈앞에 조종석 상황이 있는 듯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섯 번째 서사구조에서 카메라는 청문회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미국의 청문회는 전통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샷19는 보잉사의 777 선임 기장이 견해를 제시하는 화면으로 구성하여 조종사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샷20에서 청문회장 전경을 화면 안에 가득 담으며, 청문위원들이 높은 단상에 위치하고있는 구도에 더해, 청문위원들의 후방에 미연방항공청의 거대한 심볼(Symbol)을 보여주고 있어 이 청문회의 권위와 상징을 표출하고 있다. 이어지는 샷21로 보잉사의 조종석 엔지니어가 항공기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우수함을 피력하는 장면을 통해 샷7부터 샷9까지 기계적인 문제보다 조종사의 역할이 부족하였음을 강조하는 구도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서사 구조인 ‘샷22, 23’은 생존자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등장시켜 가공되지 않은 당시 상황을 환기시켰다.

‘샷24’의 생존자 인터뷰 샷에서 처음으로 리포터가 등장하여 같은 화면에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인터뷰라는 상황의 현장감을 살리는 효과와 더불어 생존자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 국면의 영상 샷에서 자막은 공통적으로 ‘조종사(Pilot)’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시청자는 조종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의 자막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막에 계속 노출되어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제1국면에서 발표되어 문제시되고 있는 미연방항공청의 이례적인 브리핑 내용의 연장 선상에 있으며, 이는 조종사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제

2국면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 표 12 > 제 2 국면 Moving(이동) 미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분석 수준 (Level of analysis)	분석 요소 (Component of analysis)	분석 결과 (Analytical findings)
텍스트 수준 (Text level)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p>명확한 주제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보도의 문장들은 사고의 원인과 인명 피해, 사회적 기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글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청문회 리포트를 통해 기승전결 인적 과실에 대한 논조로 진행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음.</p>
	단어선택 (Word selection)	<p>조종사 경험, 첫 랜딩, 경험, 조종사 인터뷰, NTSB 발표, 음성기록장치. 어려움, 사망, 소송, 사고원인, 조종사 오류.</p>
	시맨틱 (Semantic)	<p>사고의 책임과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와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목적을 보여줌. 텍스트는 조종사 오류와 기체 결함을 기여 요인으로 포함하여 사고의 잠재적인 복잡성을 강조함. 또한 조종사의 경험 부족과 저고도 및 저속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강조. NTSB 보고서의 조종사 오류에 대한 사고 보고서는 담론의 중요한 전환점.</p>
	프레이밍 (Framing)	<p>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고 원인과 관련된 책임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 프레이밍은 사고 청문회와 NTSB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간헐적으로 소송과 "중국인 사망"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프레이밍</p>

		입은 NTSB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조종사 오류에 대한 사고의 궁극적인 원인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음.
담론 수준 (Discourse level)	전체 구조 (Overall structure)	문제 제기, 원인 분석, 책임과 안전강화 와 국제적 영향에 따른 양분된 시각을 보여줌. 청문회를 중심으로 하여 기체 결함의 가능성이 대부분 사라지고 ‘인적 과실’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루는 구조가 형성됨.
사회 수준 (Social level)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NTSB 보고서는 경험 부족과 조종사의 실수와 같은 요인을 강조하면서 조종사 실수로 담론을 형성함. 미법원 판결로 소방과 공항당국이 무죄로 결론남에 따라 중국 언론의 항의성 보도가 계속됨. 조종사 과실로 홀러감에 따라 항공사와 지역 사회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음. 사건 조사, 책임,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관심사와 국제적 영향을 포괄하는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됨.

이 국면에서는 인명피해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는 반면, 사고 원인에 대한 담론의 중심을 유지한다. 초기에 CNN은 착륙 충돌 중 사망자와 구조 과정 중 추가 사망자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후속 보도는 소방 당국의 과실 주장에 의의를 제기하며 세 번째 사망자는 차량 사고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소방관에 대한 과실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담론이 등장했다.

제1국면에 이어 사고의 원인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중요하다. CNN은 아시아나항공의 사후 처리 대응을 강조했다. 항공사는 부적절한 사후 처리과정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고 원인을 파악한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담론은 SFO 공항의 자동 항법 시스템과 착륙 안내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짧게 인용하면서 결함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CNN은 항공기와 시스템의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뉴스 보도들은 조종사의 부족한 경험과

접근 중 항공기 시스템의 오류를 늦게 발견하여 너무 늦은 착륙 중단 및 복항(Go-Around)을 결정하여 결국 사고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고 조종사들이 Boeing747에 비해 Boeing777의 조종 경험이 부족했음을 강조하면서 조종사의 능력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우려를 제기했다.

국면을 이어감에도 '사고 원인'에 대한 현지 청문회를 둘러싼 담론이 보도의 중심을 차지했다. 특히 소방당국과 공항 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서 '중국인 사망'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거론됐다. 이 부분은 특히 중국 여학생의 추가 사망을 중심으로 담론이 집중됐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 청문회를 시작으로 NTSB의 1차 보고서 발표로 담론이 마무리됐다. 청문회에서는 조종사 실수로 인한 "인적 재난"과 기체 결함과 관련된 "기술적 재난"이 모두 포함된 잠재적으로 복잡한 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는 사고기의 자동 속도 조절 장치의 오류와 기체 결함 가능성이 기여 요인일 수도 있음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NTSB의 1차 청문회 보고가 궁극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실수로 돌리는 모양을 취하게 되자, 미언론은 조종사의 실수를 가능성을 강조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담론을 그대로 결론 내리다시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국면에서 '인명피해'와 '사고원인'을 둘러싼 담론이 중요한 축을 형성한 만큼, 이 국면에서도 '사고원인'에 대한 담론이 지배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이 국면의 담론은 국면의 초반에는 비교적 다양한 요인을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종사의 문제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담론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6.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 분석

(1)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 영상 분석

< 표 13 >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영상분석

Number	샷(Shot)	Script
1		<p>지난 여름에 발생한 치명적인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 사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p>
2		<p>현재 NTSB 관계자들은 워싱턴에서 청문회를 열어 추락 사고의 공식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조종사들이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자동화된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했는지 여부입니다</p>
3		<p>이번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CNN 항공 및 정부 규제 담당 특파원 르네 마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건가요?.</p>
4		<p>지금 열리고 있는 회의의 첫 몇 분만에 이미 NTSB는 조종사에게 일부 책임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p>
5		<p>승무원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동화된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p>
6		<p>2009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항공 사고와 관련된 첫 번째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아시아나 214편 추락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있는냐는 것입니다.</p>

7		<p>거기에서 이미 조종사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마라톤 회의가 될 것입니다.</p>
8		<p>회의는 오후까지 이어질 겁니다. NTSB는 또한 보잉 777의 자동화 시스템과 설계가 조종사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운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p>
9		<p>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 권고 사항이 무엇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권고 안이 채택되면 비행기를 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p>
10		<p>이번에는 많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사슬의 연결 고리 중 하나만 제거해도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정렬되어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p>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의 서사 구조는 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의 최종장인 3국면은 두 가지 서사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샷1’은 카메라가 원거리에서부터 메인 앵커를 클로즈업하면서 점차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는 연출로 구성하고 있다. 이어 샷2에서 클로즈업은 고정되고 앵커를 중심으로 배경의 왼편에 사고기 잔해 사진을 두고 하단에는 붉은 바탕의 자막을 등장시켜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샷3’는 메인 앵커와 리포터를 같은 샷 안에서 좌우로 배치하였다. 앵커와 리포터가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워싱턴 현지의

리포터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샷 안에서 앵커는 경직되지 않은 표정과 제스처를 드러낸다. 앵커는 동적이고 리포터는 정적인 대비를 통해 뉴스의 주제에 대한 앵커 멘트에 빠르게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샷4’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회의 발표 현장 기조 연설자를 중심에 두어 사고의 종착점에 가까워졌음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샷5’에서 당시 현장자료화면을 표출하여 당시 사고에 대한 시청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다.

‘샷6’에서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소방 장비의 화재진압 당시 ‘초근접 샷’을 배치하고 있다. 이 샷은 광각카메라로 촬영되어 평면적인 샷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준다. 이 샷에서 자막은 ‘조종사가 자동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를 표출하여 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하게 연상시키고 있다.

‘샷7’에서는 현지 리포터가 청문회장을 배경으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과 발표가 여전히 진행중임을 드러내고 있고 ‘조종사가 자동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막은 샷 하단을 계속 점유하여 ‘조종사’의 프레임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샷8’은 두 번째 서사 구조인 청문회장의 발표장면으로 전환하는 중간 지점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타이틀롤을 등장시켜 다음에 따라올 발표장면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동하는 연출 효과를 주고 있다.

두 번째 서사 구조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인과 ‘책임(Blame)’을 강조하고 조종사의 책임을 강조한다. ‘샷9, 10’은 청문회의 투표결과가 발표되는 현장에서 발표자인 조사 국장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롱 샷으로 처리하고 있다. 샷9에서 NTSB의 크리스토퍼 의장의 소개만을 자막 처리하고 모든 부분을 육성 발표내용으로 집중한다.

CNN은 뉴스 영상에 굵고 화려한 색채의 자막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발표 현장에서는 자막 사용을 일체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 언론이 이 국면의 뉴스 영상에서 자막에 의존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미 언론의 보도에서 국면을 통틀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의도된 내용 전달에

대한 부분을 크고, 강하며 확실한 색채로 자막을 이용하던 경향과는 반대로 대비되는 단순한 화면 구성을 통해 양국의 관심이 집중된 현지 발표장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었다.

(2)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 영상의 담론구조분석

< 표 14 > 제 3 국면 Refreezing(고착) 미국 언론에 대한 담론구조분석

분석 수준 (Level of analysis)	분석 요소 (Component of analysis)	분석 결과 (Analytical findings)
텍스트 수준 (Text level)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최종 국면의 전반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고 있음. NTSB 사고 조사 보고서 내용이 다수 언급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로 문장 구조가 구성되고 있음.
	단어선택 (Word selection)	최종심의, 징계, 공식사과, 운항정지, 재심의
	시맨틱 (Semantic)	사고 원인과 관련된 담론과 조종사의 책임, 훈련의 중요성 등이 강조됩니다. 또한 항공사에 대한 조치와 제재 사항도 언급되어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남.
	프레이밍 (Framing)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결론, 벌금과 징계에 대한 보도, 사고 원인 발표와 징계에 대한 보도에서 중립적인 프레임 유지, 아시아나 항공의 공식 사과와 수용, 교육훈련 강화 프레이밍.
담론 수준 (Discourse level)	전체 구조 (Overall structure)	복잡한 사건에 대한 최종 국면의 보도들이며, 항공산업과 관련된 이슈, 책임문제, 사고 발생 원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음. 이 국면의 보도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정

		보 제공을 통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 수준 (Social level)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p>항공기 사고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음. 항공기 사고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임. 뉴스에서 다루는 사회적 맥락은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하여 조종사의 역할,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승객 대피 과정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이슈임.</p> <p>또한, 중국인 승객의 사망과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적인 측면도 반영되고 있음. 항공기 사고는 사회적인 안전과 국제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들은 이러한 사회적 과급력과 연관성을 다루며 사회 수준에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p>

제 3 고착국면(Refreezing)은 최종 조사결과보고서 청문회를 통한 투표결과와 NTSB 사고조사결과 발표가 핵심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2014년 최종 보고된 ‘NTSB Aircraft Accident Report’에 의하면 사고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세부내용으로 나누어 결론 내렸는데, 조사결과 발표 내용은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며 언론에 의한 담론의 형성은 주로 조종사 과실과 미숙, 훈련 부족에 대한 담론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자료 요청의 결과로 검토하게 된 NTSB 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언론은 사고가 기계적인 결함과 조종사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었으나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항공기의 기계적 오류를 가능성 일부만을 인정하며 특히 착륙 유도 및 자동화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조종사의 오류에 대한 부분은 항공기가 운항 중 기계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착륙 중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착륙 절차에 대한 조종석(Cockpit)의 경직된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 사고의 기여 요인으로 확인되었음을 담론으로 보도하였다.

이어서 조종사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 체계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음을 담론으로 형성하였다.

제3국면의 정리 단계 동안 ABC, CNN은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에 따른 벌금 징수와 인천 샌프란시스코간 운항 노선의 45일 운항 정지를 담론으로 하였으며, 운항 정지 45일 징계에 대한 항공사측의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가 확정되는 것을 담론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제 2 절 국면 별 한미보도영상 '샷' 분석 비교 결과

1. 한미 언론 제 1 국면 보도 영상 '샷' 분석 비교

한미 언론의 사고 발생 초기 보도 영상 '샷' 분석의 과정에서 주요 관찰결과로는 양국 언론보도가 사고 현장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샷'의 질적 차이와 현장감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들은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와 시차, 그리고 취재 리소스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언론의 '샷'은 버즈 아이뷰(헬기촬영전경)의 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현장영상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과 현장감은 미국 언론이 사고 현장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언론은 자체 취재력과 항공촬영장비 등의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내용과 각도로 보도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과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미국 언론의 규모와 기술력, 그리고 사고 현장에 직접 접근 가능한 지리적, 위치적 이점이 언론 보도의 질과 현장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 언론은 강렬하고 밝은색의 자막 처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고의 긴박함과 위험성을 강조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현장감을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반면, 한국 뉴스 영상 구성에서 자막은 자극적인 색채를 자제하고

무채색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고나 사회적 현상을 대하는 문화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언론은 대부분 현지 언론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보도 영상 '샷'의 다양성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국내 언론은 국적 항공기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고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KBS와 YTN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 화면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국내 언론이 사용 가능한 사고 현장 자료가 제한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이 국면의 연구는 언론보도 영상의 선택과 편집이 사고 발생 국면에서 긴박한 현장의 현장감을 어떻게 재현하고, 그 결과로 시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1국면에서 분석된 샷들은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 언론은 한미 합동 조사라는 프레임에서 합동조사단 중 한국측 조사단의 입장과 미국측 조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 '샷'을 모두 배치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반면 미 언론 보도의 '샷'은 1국면에서부터 NTSB 사고조사단장의 인터뷰 샷을 전면 배치하여 '조종사'의 경험,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하며 NTSB 조사단장의 인터뷰 내용을 자막으로 시청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제1국면 초기를 지나면서 제공 화면의 질적인 차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반면, 양국 언론 보도의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미 언론 제 2 국면 보도영상 '샷' 분석 비교

제2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보도의 초점은 각각 언론의 이해관계와 사고 원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상이했다.

YTN, KBS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고기의 조종 미숙 및 경험 부족에 대해 언급하였다. 운영두 사장의 브리핑 장면을 주로 배치함으로써

국내의 입장과 해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도의 일관성과 깊이를 약화시켰다.

브리핑전경과 브리핑의 샷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 장면들 사이에는 명확한 연결성이 부족했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도의 품질에 영향을 미쳤다.

이 국면에서의 보도는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사고기의 조종 미숙과 경험 부족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에는 부족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 언론은 제2 국면에서 NTSB의 전 조사국장을 인터뷰하며 조종사의 인적 실수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인터뷰 도중 '조종사(Pilot)'에 관련된 자막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사고 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제에 집중하고 그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주목을 유지하고, 사고의 원인에 대한 특정 해석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청자들이 사고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가지도록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1국면에서 이미 시작된 조종사의 인적 과실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CNN의 자막 배치는 사고 원인에 대한 국내 언론과의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 YTN의 화면과 샷 구성이 일관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반면, CNN은 보도 영상의 전반에 걸쳐 '조종사'와 관련된 자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국면의 분석 결과, 한미 언론의 제2국면 보도 스타일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사고 원인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랐다. 이는 미디어의 역할과 국가별 사고 해석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뉴스 보도와 사건에 대한 사회적 해석의 관점에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미 언론 제 3 국면 보도영상 '샷' 분석 비교

사건의 흐름이 많은 부분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YTN 보도에 사용된 영상들은 과소된 항공기와 일반 승객들의 대기 샷을 중심으로, 실제 소송 당사자인 유족들과는 별도로 배치되었다. 이에 더해 보도의 본질적 내용인 법적 소송에 대한 풍부한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였다.

반면 CNN은 제3국면에서 소송에 관한 부분을 비교적 간결하게 언급하면서, 뉴스의 시작부터 조종사의 음성기록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조종사의 당시 상황, 조사중인 조종사의 인터뷰 내용 일부, 그리고 1차 청문회에서 미측 전문가들의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큰 자막들과 함께 정지 샷으로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며 제공하였다.

CNN의 이러한 보도 전략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한 조종사 과실 강조와 함께 청문회장의 영상을 뉴스 후반에 배치함으로써, 보도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였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사고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제공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제3국면에서의 한미 언론 보도 비교는 각 언론의 보도 전략과 그에 따른 사고 해석에 대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한미간 보도 스타일과 전략 사이의 차이점은, 언론의 보도가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정보의 해석과 이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 이를 통해, 언론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담론 형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미 언론의 보도 전략, 즉 프레이밍과 그에 따른 사고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국면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언론이 사고에 대한 사회의 반응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언론의 보도 스타일을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사고기와 정상운항 중인 항공기를 교차 '샷'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건 발생 후 경과한 시간적 간극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승무원들을 같은 화면에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샷을 사용하여 사건에 대한 보다 개인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부분을 추가했다. 이러한 '샷'의 사용은 시청자들이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후의 과정을 예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한국 언론의 '샷' 사용은 정보 제공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전개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이해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미국의 언론은 '조종사 과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보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CNN이 선택한 '샷'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긴 조사기간 끝에 결과가 발표되는 청문회장을 중심으로 롱 샷과 버즈아이뷰 샷을 오가며 카메라의 동선이 자제되고 있었으며, 모든 샷에는 '조종사'를 포함하는 자막이 포함되고 있었다.

결과 발표가 기정사실처럼 보도되어지는 일련의 화면 구성의 결론부에 이르러, CNN은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현장은 카메라 샷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또한, 모든 자막을 배제한채 발표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조종사의 과실과 항공사의 책임에 대하여 강조하는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송출하였다.

이러한 '샷'의 선택은 CNN의 직접적인 보도 스타일을 반영하였다. 이는 사건에 대한 CNN의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며, 사건의 결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확고하게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각적 요소가 언론사의 보도 방식과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미 언론사가 뉴스 영상을 구성하고 '샷'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그들의 보도 스타일과 전략을 반영하고, 그것이 다시 시청자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뉴스 보도 편향성에 대한 비평을 하기 보다는, 뉴스의 본래 의무인 객관성과 공정성에 더해 뚜렷한 목표와 전략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제 5 장 결론과 함의

제 1 절 연구 결과와 영향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한, 미간 언론보도가 국가 간의 이익과 결부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언론 본연의 공익 목적(common societal benefit)은 퇴색하고 그 목적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공영 방송과 뉴스 전문 채널 KBS, YTN, ABC, CNN의 보도 영상에 대한 형식적 내용적 특징, 샷 분석과 뉴스의 담론 형성 분석을 통해 국가 간 언론보도의 방향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스의 영상과 언어 기사 분석을 통해 양국간 보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각각의 국면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국면의 흐름에 따라 보도의 형식이 한국 언론은 국면의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의 뉴스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 언론은 국면 전환에 따른 보도의 유형과 형식이 사고 초기 국면 이후부터는 다양성과 빈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 언론은 여러 패널을 뉴스에 등장시키기도 하여 국내외를 오가는 토론 형식의 진행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사고와 연관성은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의미 전달의 보도 영상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 언론에 꾸준히 문제시되어 오고 있는 재난 사고에 대한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뉴스 생산 관행을 드러낸 일면일 것이다.

미국 언론은 뉴스에 패널을 출연시키는 빈도와 대상자 선정에서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777기종 조종시스템에 대한 보잉사의 전문가, 전직 NTSB 조사단장, 현직 777 조종사 그리고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불리게 된

‘체슬리 쉘렌버거’를 토론과 인터뷰어로 선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주제는 ‘조종사들의 대응은 적절했는가’로 귀결되고 있었다.

보도의 빈도 차이에서도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KBS, YTN의 총 377건의 기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보도는 ‘사고 후의 처리와 대책’에 관한 기사였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도는 그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반면, ABC, CNN의 196건의 기사 중 ‘사고의 원인’이 가장 많은 보도를 차지하였으며 ‘사고의 현장’, ‘인명 피해’에 대한 기사가 뒤를 잇고 있었다.

프레이밍과 담론 형성에 따른 특징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 언론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은 보도의 모든 단계에서 아시아나항공의 1차적 책임을 분산시키려 했다.

미 언론은 산발적 주제로 보도되는 뉴스 이외에는 사건의 전 국면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종사의 과실’을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프레이밍하고 담론을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양국 보도 스타일의 이러한 분명한 차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잠재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적으로 행동하는 언론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 언론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와 공항 당국의 책임을 가능한 한 면책시키려는 의도로 보였다.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로 보도 영상의 서사 구조와 ‘샷’의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2를 통해 드러난 프레이밍과 담론의 형성이 영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배치되어지고 수용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알 수 있었다. 영상에서 언어 기사와 이미지가 함께 작용하여 사고 상황과 시간에 따른 과정의 변화를 드러내고 때로는 앵커나 리포터의 워딩과 샷을 구성하고 있는 카메라의 로케이션 변화에 따른 자막의 처리와 내용이 워딩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최종국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는데 리포터나 인터뷰어의 워딩과 다르게 자막은 지속적으로 ‘조종사’를 키워드로 하여 수용자에게 시각적인 노출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로 같은 사건인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언론의 보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 매체는 조종사의 실수보다 항공기와 공항의 기계적 결함을 강조한 반면, 미국 매체는 기계적 결함보다

조종사의 실수를 강조했다.

사실 언론의 뉴스 보도란 이상적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각각의 담론과 프레이밍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때 형성되는 양국 뉴스 보도의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사고 상황에서 방송사의 국적에 영향을 받는 특정 요인에 대한 성향을 정의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각각 '지배적인 담론' 혹은 '지배적인 프레이밍'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지배적인' 유형의 프레이밍은 뉴스 보도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식을 형성하려는 시청자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각국의 언론 매체는 사건에 대한 균형 잡힌 명확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면, 지나친 의도가 가미된 뉴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종사의 과실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된 결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민사회의 경제활동과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개의 운항 슬롯(Slot) 중 한 곳이 미 항공당국으로부터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국내외 많은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샌프란시스코사고 이후 '항공안전위원회'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여 항공안전종합대책(2013)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항공안전감독활동 백서, 2014), 국적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관들의 특별점검을 항공사별 1개월의 기간 동안 시행하여 상시안전감독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항공사와 공항 당국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 확인 및 안전저해요인의 자체적 발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이를 독려하였다. 이는 사고 이후 제기된 항공분야의 안전에 경각심을 갖는 동시에 이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던 한국 항공 안전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으로 항공사의 자구 노력은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강화하였다. 이는 NTSB 'Aircraft Accident Report'의 권고사항을 일부 착안한 사항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두가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의 강화'로 귀결되고 있었다.

제 2 절 결론과 시사점

사회적 재난에 직면한 방송사는 당면한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등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보다 더 심도있는 보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시청자가 접하는 뉴스는 매체의 속성에 영향을 받아 일관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사건에 대한 두 나라의 보도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항공기와 공항의 기계적 결함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은 사고 보도의 핵심 내용으로 조종사 과실을 부각시켰다. 재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접하는 뉴스는 종종 왜곡되어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이상적인 뉴스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사고를 둘러싼 한미 언론의 상반된 보도 경향과 인식은 언론이 가공하고 보도하게 될 뉴스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더불어, 자국민과 기업, 국가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한국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략과 방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기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고 후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매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를 되돌아보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의 진위 여부를 떠나, 미국 언론은 일관되게 '인적 오류'라는 과녁을 조준하였으나 한국 언론은 일관된 모습으로 사건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담론과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은 지대하고 필수적임이 분명하였다.

제 3 절 제언 및 한계

연구를 위해 포진이론에 의한 국면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적용하였는데, 이런 분류 방식은 본 연구자의 판단력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는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영상의 샷 분석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으나 영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샷의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영상과 샷 분석에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을 들이고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했더라면 더욱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분석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샷 분석의 부분에서는 일일이 프로그램에서 뉴스 영상을 돌려가며 추출했던 샷들이 과연 이 사건의 각 국면들을 대표할 만한 것들이었는지, 더 확실한 샷을 추출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미련을 남기게 되었다.

샷 분석에 대한 부분은 차후 뉴스 영상에 대해 ‘샷 스펙트럼 분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러한 분석이 사회적 사건과 현상에 대한 프레이밍과 담론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프레이밍과 담론에 대한 분석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수집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단순히 뉴스 영상의 내용과 기사의 통계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수집, 검토하고 특히 미국 언론의 영상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ABC, CNN은 서버의 불안정함과 오래된 보도 영상이 다운되고 차단되어진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자료 분석과 추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미 뉴스 영상의 실질적, 직접적인 분석과 비교를 통해 상호 연관된 국가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진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과 태도의 변화를 명확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언론 보도의 미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자료 분석함에 있어 범용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뉴스의 영상분석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도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호. (2019). 샷 분석을 통한 대통령 선거 TV토론회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0(5).
- 김영민. (2001). 포진이론의 발전과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언론학보, 45(2), 5-32.
- 김성진, & 박경우. (2009). 국가재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 형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3(2), 5-41.
- 김성태. (2005). 뉴스 프레이밍의 유형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3), 117-137.
- 김진용. (2015). 아시아나 항공사고 보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논문집, 6-7.
- Kim, W. & Choi, Y. (201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블로그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6(4), 7-32.
- 권현경. (2015). 세월호 사건 방송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Unpublished master's thesis). 고려대학교.
- 노태우, & 박재찬. (2014).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항공사례분석과 항공안전 개선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4), 95-124.
- 박선희. (2002). 담론과 사회. 서울: 민음사.
- 백선기. (2003b). TV 보도 영상의 서사구조와 의미구조. 한국언론정보학보, 57-109.
- 백선기. (2005). 한국 TV의 '미국-이라크' 전쟁보도 경향과 담론구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22.
- 백선기, & 이옥기. (2011).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양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한일국제심포지엄.
- 백선기, 이옥기, & 이경락. (2012).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에 대한 국가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68.
- 백선기. (2003a). 텔레비전 영상 기호학: TV뉴스 영상의 서사구조, 의미구조, 이데올로기 구조. 미디어 24.

- 양영철. (2009). 『TV뉴스의 이해』. 한림대학교 출판부.
- 이상훈. (2012). 포진이론과 미디어 프레임: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쟁점과 과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8월호.
- 이종수. (1999). 텔레비전 뉴스영상 구성: 한국 텔레비전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텍스트의 연관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12, 219-252.
- 이희영. (2013). 뉴스프레임 유형화 연구.
- 안혜정, & 정정주. (2016). ‘샤를리에브도’ 사태에 대한 프랑스, 미국, 한국 언론보도의 의미망 비교 분석. 현대유럽철학연구, (42), 239-276.
- 임연희. (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4), 179-201.
- 임태섭, & 김광수. (1993). 담론분석이론과 적용. 언어와 정보, 3(1), 5-38.
- 정민환. (2012). 방송뉴스의 영상구성 형식에 따른 수용자 인식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정수영. (2015).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11(2), 56-103.
- 정연구. (1998).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준칙과 보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차현주, & 권상희. (2020). 프레임(Framing) 이론 메타분석: 2010-2019.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9:4, 119-148.
- 최민음, & 태보라. (2017). 국내신문의 ‘스캔들’ 보도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8), 98-109.
- 최연철, 김양규, & 김철영. (2012). 인적오류, 인적요인분석 및 분류시스템 (HFACS) 고찰을 통한 항공사고 예방. 한국항공우주학회지, 40(4), 327-335.
- 최중수. (1984).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전예원.
- 필청청. (2016). 각국의 언론 보도 방식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0(2), 5-28.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 <신문과 방송>, 3월호, 1-16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활동백서. (2014).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백서. (2018).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백서. (2020).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아사아나항공. (2014). OZ214(HL7742) 샌프란시스코 사고 리뷰, 2014

Bateson, G. (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New York: Ballantine Books.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J. Tankard, L. Hendrickson, J. Silberman, K. Bliss, & S. Ghanem. (1991). Paper presented to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Boston.

Lewin, K. (1945).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 Row.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sorsa, D. (2002). Diversity in mass communication theory cours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Educator*, 57, 244-259.

Oliver-Smith, A. *Anthropological Research on Hazards and Disaster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5:303-328.

Tversky, A., & Kahneman, D. (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2), 207-232.

Schramm, W., & Roberts, D. F. (Eds.). (1971).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 *Journal of*

- Communication, 49(1), 103-122.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 Van Dijk, T. A. (1983). "Discourse Analysis: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The Structure of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2, pp.20-43.
- NTSB. (2014). *Aircraft Accident Report: Descent Below Visual Glidepath and Impact With Seawall Asiana Airlines Flight 214*.

[Web Site]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매뉴얼.(2023). <http://www.mois.go.kr>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http://araib.molit.go.kr>
- 미국연방재난관리청. <http://www.FEMA.gov>
- 방송통신위원회 <http://kcc.go.kr>
- KBS. <http://news.kbs.co.kr>
- YTN. <http://ytn.co.kr>
- ABC. <http://abcnews.go.com>
- CNN. <http://dition.cnn.com>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American Video Reports of the Asiana Airlines Accident

Hong-Kill Kim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a comparative study centered on the video coverage of the Asiana Airlines crash in 2013 by the Korean and American medi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media in disaster situations and its social and national impact.

To this end, the researcher collected news footage from the Korean and U.S. media and analyzed the amount of coverage by media outlets to identify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news coverage i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he researcher extracted and compared the 'shots' of the Korean and U.S. news footage by applying the three phases of the event flow according to the herpes theory, and analyzed the discourse structure and framing of each phas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two countries' coverage.

The analysis revealed conflicting opinions, with the Korean media focusing on mechanical defects and airport landing facility failures, and the U.S. media focusing on pilot error.

The U.S. media seemed to focus on the discourse and framing of "pilot error" after the initial phase of the accident. The U.S. media focused on the discourse and framing of "pilot error" after the initial phase of the accident. This means that pilot error tended to be the centerpiece of the coverage.

These results show a shift in media coverage trends and attitudes toward issues of national interest and stake. The differences in coverage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media reveal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and the role of the media, which can help us understand the interests of the countries and the role of the media.

This study uses these differences to prompt reflection on the future direction and role of Korean media coverage. In doing so, it support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hich is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the media reflects the interests and concerns of the state and, in turn, influences society.

On the one hand, it highlights the impact of the incident on the imag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San Francisco, the Korean aviation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ies. On the other hand, it also identified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which included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measures and the conduct of special safety inspections.

Finally, the study questions the media's role in the importance and objectivity of news and disaster coverage, noting the potential for news reports to be distorted by frames and discourses shaped by national interests and corporate protection. This suggests that the media should put more thought and effort into their coverage of national events.